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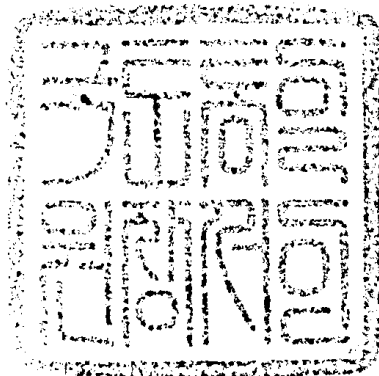
38332

240.112

- I. 이 冊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拠한 自體研究 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共產圈 實態把握을 위한 研究에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勢力調查研究 - 共產圈

華國鋒体制下的 毛澤東思想에 관한 研究



Handwritten notes in Korean, including the name '김보림' (Kim Bo-rim) and other illegible characters.

研究責任者：金 炳 麟 (第3 研究官)

国土統一院政策企劃室

## 要 約

中共의 內政은 1949年 中共政權樹立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紅" 路線과 "專" 路線이라는 두개의 對立되는 路線이 되풀이되는 惡循環으로 一貫되어 있다.

"紅" 路線이 中共社會에 미친 惡影響과 害毒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華國鋒·鄧小平體制는 文化革命路線으로부터 現代化路線으로 180度 轉換하였다.

中共의 內政이 共產國家 特有의 權力政治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路線의 轉換은 單純한 路線만의 轉換이 아니며, 여기에는

- (1) "紅" 路線의 옹호자이자 이의 強力한 推進役이었던 文化世代를 어떻게 處理해야 하며
- (2) "紅" 路線의 理論的 뒷받침이 되어온 毛沢東思想을 어떻게 取扱해야 하는가 하는 難題를 隨伴한다.

이러한 어려운 問題가 提起되고 있음에도 現中共指導部가 "紅" 路線을 中共社會를 落後하게 만든 가장 重要한 原因으로 간주하고 있는 以上 經濟優先의 現代化路線에로의 轉換은 不可避하며 이 轉換은 毛沢東思想에 대한 批判과 修正을 포함 不可避한 것으로 만 들고 있다.

現在의 華國鋒·鄧小平體制下에서 毛沢東思想에 대한 批判과 修正은

다음과 같은 세계의 方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 " 4人組 " 殘存勢力에 대한 摘發과 批判鬭爭을 合理化하기 위해 " 4人組 " 와 毛沢東思想을 分離시키는 作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毛沢東思想中에서 現中共指導部가 그들의 現代化路線을 推進함에 있어서 有利하다고 判斷되는 部分만을 強調해 보인다.
- (3) " 毛沢東思想은 그의 思想의 全體系속에서 理解되고 把握되어야 한다." 는 이름밑에서 選択적인 修正이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華国鋒이 毛沢東思想을 批判·修正하고 " 4人組 " 勢力에 대한 摘發·批判鬭爭을 展開하는데 있어서 華国鋒體制의 特殊한 性格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制約條件이 다르게 된다.

- (1) 華国鋒 自身이 毛沢東의 後繼者이며 文革時에 毛沢東에 의해 中央으로 登用된 文革受益者이며,
- (2)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을 지나치게 批判하는 것으로서 심볼로서의 毛沢東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태까지 毛沢東思想의 正當性 위에 根拠하고 있던 中國共產黨과 華国鋒體制의 存在 自體가 흔들리게 됐다.
- (3) 華国鋒體制의 性格의 이러한 特殊性과 制約條件으로 인해 그는 文革世代와 鄧小平勢力間의 갈등속에서 適正線을 維持해야 하는 배런서의 役割을 擔當해야하는 立場에 놓여 있다.

따라서 毛沢東思想에 대한 過激한 修正은 이루어짐이 없이

그의 思想의 全體系는 그대로 維持되면서 華国鋒·鄧小平體制의 必要에 따르는 選擇적인 修正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軍의 現代化, 經濟의 現代化와 "4人組" 摘發·批判鬭爭을 徹底히 推進해 나가려는 鄧小平勢力과 어느程度의 배런스를 維持하려는 華国鋒勢力間에는 이들 問題를 위요하고 意見對立이 發生할 수 있는 素地는 많으며 이것이 適正線에서 調和를 이루지 못할 때 權力鬭爭으로까지 發展하게 될 可能性이 濃厚하다.

# 目 次

## 要 約

1. 華国鋒体制의 基本性格 .....	3
2. 華国鋒登場의 諸条件 .....	9
3. 華国鋒体制의 对内政策轉換 .....	15
4. 第5次 人民代表大会 以後의 華国鋒体制의 進路 .....	27
5. 毛沢東思想에 대한 挑戰 .....	44
6. 毛沢東 思想의 不變要素와 可變要素 .....	64
7. 結 論 .....	69

## 1. 華国鋒 体制의 基本性格

### 가. 華国鋒 体制가 当面한 政治的 課題

- 長期間에 걸쳐서 毛沢東과 같이 높은 威信과 카리스마적인 權威를 갖고 最高 指導者의 地位에 있었던 人物이 死亡한 後에는 그를 代身해서 그와 같은 絶對的인 役割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
- 毛沢東은 종든 심든간에 中共의 政策決定에 대해서 個人으로서 巨大한 影響力을 미치고 是非善惡의 最終決定者의 役割을 遂行하였다. 이 權威는 몇번의 挑戰에도 이를 克服하고 最後까지 動搖하지 않았다.
- 이와 같은 巨人의 存在를 前提로 했던 政治家 毛沢東 死後에는 이미 繼續될 수가 없었다. 즉 毛沢東 個人의 決定에 의거했던 体制로부터 組織, 制度를 重視하는 体制로의 移行이 必要하게 되었다.
- 正常化 問題가 惹起되는 直接的인 理由는 毛沢東의 存在에 依해서 그 始作이 可能했던 文化大革命이라는 異狀事態下에서 蓄積된 政策的, 權刀政治의 解弛가 이미 放置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 毛沢東의 權威를 背景으로 行動한 '4人組'가 惹起한 '無政府主義'와 '奪權陰謀' 등이 中共社會의 모든 側面に 惡影響을 미쳤다. 이 惡影響을 除去하고 經濟의 發展, 政

治의 安定을 圖謀할 必要가 있었다.

- 이와 같은 課題의 達成에는 몇가지의 困難이 隨伴된다.  
첫째의 困難은 政治的인 것으로서 中共 스스로가 規定하고  
있듯이 中共은 開發途上의 社會主義國家이다. 이와 같은  
內政의 基本路線은 결코 單純한 것이 아니다.
- 一方에 있어서 生産力向上의 要請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社會主義的인 制度, 思想을 推進할 必要가 있다.
- 여기에서 革命과 建設 卽 '紅'과 '專'중에서 어느 것  
에 重點을 뒀야 하는가 하는 路線, 政策을 對立이  
나타나게 된다. 보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生産을 增大시키  
려고 現代化, 組織化를 推進하다 보면 그 過程에서 一時的  
이라고 할망정 여러가지 隔差가 增大하고 社會主義國家 特  
有의 官僚主義도 나타난다. 더우기 여기에 中共社會에 남  
아 있는 傳統意識이 作用하여 官僚主義는 더욱 深化된다.  
教育에 있어서 暗記主義, 出世主義의 같은 것이 普遍化되고  
만다.
- 여기에서 이에 대한 格差縮小, 官僚主義批判의 政治的 ایده  
올로기의 캠페인이 實施되게 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번에는 勞動意慾을 低下시키고 無政府主義 傾向等을 發生  
시키고 社會의 傳統意識까지 作用하여 權威盲從傾向, 派閥主  
義, 情實主義를 낳게 마련이다.
- 그러나 이 이율배반적인 두개의 路線은 一長一短이 있으며

中國의 內政은 이 두개의 傾向이 되풀이 하는 싸이클로서 把握될 수가 있다. '4人組'의 問題性은 '紅'路線이 갖는 마이너스面을 集中的으로 代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安定과 發展을 圖謀하고 正常化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建設과 '專'을 重視하는 路線의 復歸가 必要하다.

- 그러나 이 두 路線이 一長一短을 갖는 以上 兩者拮一이 아니라 兩者의 最適의 배런스를 發見할 必要가 있다. 그 點에 있어서도 이 배런스를 찾아내는 作業은 極히 어려우며 또 發見한다해도 새로운 싸이클의 再現을 回避한다는 것은 困難하다.
- 둘째로 困難한 것은 權力政治라는 點이다. 上記의 路線對立이 上述한 바와 같은 單純化된 說明보다는 훨씬 複雜하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름간의 對立도 複雜하다.
- 單純化해서 말한다면 '專'路線의 背後에는 實務官僚, 軍, 知識人등이 있으며 '紅'路線의 背後에는 文革新이데올로그의 新幹部를 비롯한 文革新世代, 文革新受益者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 이들 구름간에는 적어도 潛在的인 相當한 對立關係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正常化를 推進한다고 하면 實務官僚와 軍人의 支持를 얻을 것이지만 反面 相當한 勢力을 남겨 놓고 있는 文革新受益者層과의 對立도 回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政策面에 있어서



의 배런스와 密接하게 聯関된 問題로서 이 諸구름간의 力学關係를 어떻게 均衡되게 하는가 하는 困難한 問題가 發生한다.

- 세번째 問題는 毛沢東 및 毛沢東思想에 對한 取扱이다.  
現 中國指導部가 '4人組' 분쇄이후 아무리 努力한다해도 毛沢東 스스로가 發動을 건 文化大革命에 있어서 '4人組'가 遂行한 積極的 役割을 否定할 수가 없다.
- 毛沢東의 萬년에 있어서 毛沢東夫人 江清을 中心으로 하는 구름이 毛沢東의 意思의 代辯者로서 認定되었다는 것은 事實로서 否認할 수가 없다. 그러나 '4人組' 批判에 隨伴해서 毛沢東思想에 對해서 어떠한 態度를 取하는가 하는 것도 困難한 選擇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
- 論理的으로 말하면 스탈린批判에도 비길만한 毛沢東批判도 있을 수 있으며 毛沢東의 文革路線에 忠實하게 따르는 選擇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택하든 결코 容易한 問題는 아니다.

#### 나. 華国鋒 登場의 諸條件

- 以上과 같은 困難과 問題點을 안고 있는 課題를 達成함에 있어서 華国鋒은 現在의 中國의 여러 指導者들 가운데서 極히 有利한 條件을 갖고 있었다.
- 첫째 華国鋒은 文革속에서 頭角을 나타내고 毛沢東에 의해서 中央으로 登用되고 또 毛沢東에 의해서 首相, 第1副主

席에 指名된 人物이라는 点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 이 때문에 華国鋒은 毛沢東의 傳統的인 繼承者이라고 主張할 수 있으며 또 広範한 文革世代, 文革受益者의 積極인 反對를 사게 될 念慮가 없다. 이 点은 極히 重要하다. 그러나 華国鋒의 라이벌로서 지목되고 있는 다른 指導者, 예를 들면 鄧小平등은 이 点에서 대단히 큰 핸디캡을 안고 있다.
- 둘째는 그 反面 華国鋒은 단지 文革이데올로기는 아니며 実務에 精通하고 建設을 指向하는 人物이라는 것이 指摘된다. 따라서 実務 官僚와 軍人도 굳이 華国鋒에 反對하지 않는 점을 갖고 있다. 그 意味에 있어서 華国鋒은 中共 内部의 各 그룹의 最大公約數的 位值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華国鋒은 1976年 2月 首相代行으로 就任하였을 때 이것은 各派의 妥協의 結果이다 라는 解釈이 나타났으나 協議, 妥協이 있었는지의 如否는 別途로 하고 이와 같은 解釈은 華国鋒의 最大公約數的 性格을 注目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여기에 添加한다면 華国鋒이 公安部長의 經驗者로서 公安關係에 발판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프러스 要因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關係에서 任東興 및 그의 揮下의 8341部隊를 자기편에 끌어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華国鋒이 中央에서 다른 指導者와 比較해서 經驗不足임에도

不拘하고 '4人組' 분쇄 후 第1副主席에서 순탄하게 主席으로 昇格하고 그 이후 그 地位를 保持하고 있는 것의 主要因의 하나는 그가 갖는 이와 같은 有利한 條件이 있었기 때문이다.

- 中共 内部의 各 集團은 毛沢東 死去, '4人組' 분쇄 후의 危機的 狀況에서 最大公約數인 華国鋒을 내세우는 길 以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華国鋒으로서는 路線의 選擇面에 있어서도 諸集團間의 力学關係 維持面에 있어서도 배런사로서의 役割을 遂行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華国鋒 体制가 갖는 基本的인 特徵의 하나가 存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体制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華国鋒의 能力과 그의 政治 內容인 것이 아니다.
- 現實的으로 華国鋒体制를 지탱하고 있는 諸勢力中에서 특히 重要的 것은 軍이며 '偉大한' 指導者가 死亡한 以後 正統 性을 위요하고 混亂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특히 影響力을 發揮하는 것은 實力의 保持者인 軍이기 때문에 軍의 支持는 極히 큰 意味를 갖는다.
- 또 実務官僚도 正常化에의 要請속에서 華国鋒을 내세우는 것으로 目標를 實現하려고 企圖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華国鋒体制下에서 保持되는 배런스는 이와 같은 支持基盤에 눌려서 必然的으로 '右'의 方向 내지는 '專' 路線, 生産

刀 優先路線의方向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 2. 華国鋒의 毛沢東 正統性 繼承努力

### 가. 레닌과 스탈린으로서 毛沢東

- 이미지 내지는 正統性的 次元에서 華国鋒体制가 行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4人組'를 분쇄함과 同時に 毛沢東과 '4人組'를 分離하고 毛沢東의 威信을 지키기 위해서 最大限의 努力을 傾注하였다.
- 一般的으로 '4人組' 분쇄이후 스탈린死後의 스탈린批判과 類似한 毛沢東 批判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論議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論議를 함에 있어서 毛沢東이 中國의 政治에 있어서 어떠한 機能을 遂行하여 왔으며 毛沢東 批判이 어떠한 效果를 갖는 것인가를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 毛沢東은 生前 中國의 政治에 있어서 二重의 機能을 遂行하였다. 그 하나는 生身の 政治家로서 特定の 路線, 政策을 主張하고 一定의 政治勢力을 代表하는 機能이다.
- 또 하나는 中國 革命과 中華人民共和國의 正統性을 代表하는 權力의 源泉의 신분로서의 機能이다.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은 반드시 万能은 아니었다. 50年代부터 이미 그의 政策에는 他의 政治勢力으로부터의 批判이 있었으며 반드시

政策論争등에 있어서 優位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또 毛沢東의 晩年에 있어서의 路線과 政策에는 相當한 問題點이 存在한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심볼로서의 毛沢東은 그 威信을 가장 低下시킨 時期(60年代 前半)에 있어서 까지 他로부터의 侵犯을 許容하지 않는 權力과 威身의 源泉으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 스탈린批判과의 比較의 觀點에서 말한다면 스탈린을 否定하여도 蘇聯에 있어서는 레닌에서 傳統性의 심볼을 구하는 것이 可能하였다. 따라서 政治가 스탈린을 否定하는 것으로 심볼로서의 스탈린이 아울러 否定되어도 蘇聯의 體制가 흔들릴 念慮가 없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毛沢東은 말하자면 一身에 스탈린과 레닌을 함께 兼備하고 있었다.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을 批判하는 것으로서 심볼로서의 毛沢東이 무너지다면 이것은 充分히 制度化되어 있지 않는 中國共產黨의 支配全体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事態를 惹起한다. 따라서 毛沢東批判은 中國指導部가 過去를 否定하는 것으로써만이 자기의 支配를 維持할 수 있다고 생각케 하는 事態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 이 점에서 自己의 支配와 建設路線의 正統性을 스탈린의 威身に 거의 依存하고 있던 50年代 中期의 中國이 스탈린에 대해서 얼마간의 批判을 하면서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批判에 衝擊을 받고 스탈린擁護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事實을 상기해볼 必要가 있다.

- 스탈린과 毛沢東은 中国의 政治에 있어서의 比重이 전혀 틀린다. 政治家로서의 毛沢東과 심볼로서의 毛沢東이 分離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에 대한 批判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毛沢東 批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華国鋒体制가 '4人組'와 毛沢東을 分離해서 毛沢東의 威信을 지키는 努力을 行하는 것은 当然한 일이다.
- 이것은 華国鋒에 있어서 二重의 意味가 있다. 첫째는 華国鋒이 그 歴史가 比較的 짧고 能力的으로도 반드시 拔群인 것이 아닌데도 不拘하고 正統的인 權力 繼承者로서 党主席의 자리에 앉아 있는 커다란 理由는 그가 毛沢東이 스스로 選擇한 後繼者라는 点이다.
- 華国鋒 個人으로서도 自己의 地位를 지키기 위해서는 심볼로서의 毛沢東의 威信을 最大의 努力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 둘째로 中国共産党的 支配의 正統性은 '毛沢東思想'의 正當性에 根拠하고 있다, 建国以來(權力的 奪取 그 自体도) 28年の 政策은 모두가 심볼로서의 毛沢東의 이름으로 正當化되어 왔다. 中国과 같은 一元的 政治体制에 있어서는 最終的으로 是非善惡을 判定하는 權威의 存在가 不可欠하다. 그것이 심볼로서의 毛沢東 및 毛沢東 思想의 機能이었다.

따라서 過去 20年의 実績위에 自己의 正統性을 主張하려는 이상 毛沢東의 威信에 傷處가 입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 一般民衆의 側으로 말하더라도 '4人組'와 分離된 毛沢東의 威信의 保持는 歡迎할만한 것이었다고 보아 진다. 中國의 一般民衆은 20년에 걸쳐서 毛沢東의 이름으로 動員되고 學習하고 이런저런 政治活動에 參加하여 왔다. 심볼로서의 毛沢東은 그들 一生의 一部가 되어 있었다.
- 따라서 만약 '4人組' 批判과 함께 毛沢東이 批判되는 事態가 發生하면 그것은 自己 存在 그 自体에 疑問을 던지는 衝擊이 될 것이다. 極히 다이내믹한 事態가 여기에 發生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 따라서 華国鋒體制가 '4人組'와 毛沢東을 分離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이 갖고 있던 마이너스 部分까지를 毛沢東에게서 떼어 내어 '4人組'의 責任으로 돌리는 것으로써 '毛沢東은 역시 正當하였다'라는 이미지를 提示하였을 때 中國 民衆은 自己를 再確認한 듯한 安堵感을 가지게 된 것이다.
- 물론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이 일으킨 運動에 의해서 被害를 입어 毛沢東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知識人과 幹部中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可能性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심볼로서의 毛沢

東을 包含해서 毛沢東을 批判하고자 하는 慾求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傾向은 一部 現象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 内部의 暗黙의 了解以上の 것이 될 確率은 적을 것이다. 오히려 大多數의 사람들은 過去 모든 것이 否定되지 않고 心理的인 連続性이 維持되는 쪽에서 커다란 滿足을 찾을 것으로 본다.

#### 나. 毛沢東과 '4人組'와의 分離

- 이와 같은 狀態였기 때문에 '4人組'와 毛沢東을 分離해서 毛沢東의 威信을 지키려는 試圖는 華国鋒体制 및 中国共産党的 支配의 正統性을 強化하고 人心을 安定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成功을 가져 왔다고 생각된다.
- 毛沢東이가 生前에 '4人組'에 대해서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批判이 詳細하게 紹介된 것은 毛沢東과 '4人組'를 分離하는 努力의 集大成이었다. 어떤 意味에서는 華国鋒 報告는 中国人民大衆의 제일 듣고 싶어하는 바를 말했다고 할 수도 있다.
- 突撃工事로서 제일 먼저 毛沢東紀念館을 完成시키고 그 題字를 華国鋒이 손수 써서 붙인 일, 多様な 解釈을 낳게 하여 正統性論爭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毛沢東思想의 解釋權을 掌握하기 위해 '毛沢東選集' 第5卷을 出版한 것들



은 毛沢東의 威信을 保持함과 同時에 華国鋒을 보다 強하게 毛沢東의 威信과 結付시키고 그 地位의 安定化에 貢獻하려는 行動이었다.

- 그와 同時에 華国鋒 自身の 威信을 構築하는 努力도 推進되었다. '4人組' 분쇄이래 1년여에 걸친 華国鋒의 行動은 情勢判斷과 平衡感覺의 正確性을 表示하고 있다.

이와같은 印象이 그의 聲望을 높이는데 寄与한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그 以上으로 黨主席으로서의 華国鋒을 '英明한 首領'으로서 印象있게 하는 캠페인이 行해진 것도 아니다.

- 이와 같은 캠페인의 代表的인 것이 11全大會에 있어서의 葉劍英의 黨規約 改正에 관한 報告의 發言이다. 이 報告에서 葉劍英은 '華主席은 毛主席의 弟子, 後繼者가 됨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우리 黨과 우리 人民의 英明한 指導者가 됨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華主席은 반드시 毛主席이 열어 놓은 프롤레타리아革命事業을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시켜 우리 黨, 우리 軍 및 우리나라 各 民族人民을 指導해서 勝利속에서 第21世紀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陳述하고 華国鋒 長期執權의 展望을 表示하였다.
- 華国鋒의 威信을 높이려는 努力은 中國의 一元的 體制가 是非善惡의 最終的 批判의 存在를 必要로 하는 한 不可 欠하다. 다만 華国鋒은 毛沢東과 달라서 카리스마的인 權

威도 広範한 追從者를 動員하는 能力도 없다. 党主席의 地位에 正統性이 있다는 것에 必然的으로 附隨해서 賦与되는 威信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 따라서 그 威信은 華国鋒이 훌륭한 반란자로서 自己의 役割을 離脱하지 않는한에 있어서 保持될 性格의 것이다.

### 3. 華国鋒体制의 对内政策轉換

#### 가. 政治優先에서 經濟優先으로

- '4人組' 摘發과 批判은 思想의 面과 組織의 面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思想面에서 특히 重要的인 것은 '路線의 是非'를 明確히 하는 것이었다. 過去 '4人組'는 新聞, 放送에 대한 支配權을 独占하고 自己들에게 有利한 論調만을 내보냈다. 또 毛沢東의 晩年에 있어서도 身病中인 毛沢東에 接觸하는 機會를 独占하고 毛沢東의 意思를 歪曲, 改造하여 傳하였다고 한다.
- 그 結果 '4人組' 분쇄이후에도 '4人組'의 思想, 理論 및 路線上에 가져온 混亂'을 '過少評價해서는 안된다'라는 狀態가 남아 있었다.
- 여기서 말하는 '4人組'의 解毒 가운데는 반드시 '4人組'의 歪曲만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이 推進한 路線政策中에서도 中国社会의 實情에 맞지 않았던 것등도 包含되어 있었다.

- 이러한 狀況에서 華国鋒体制下에서는 指導 이데올로기로서의 毛沢東思想의 內容을 確認할 必要가 있었다. 毛沢東思想이라는 것은 內容이 多様하며 時期에 따라서 變化하였다.  
 '毛沢東思想을 갖고 毛沢東思想을 批判'하는 것과 같은 傾向도 그와 같은 毛沢東思想의 特質때문에 可能한 것이다.
- '4人組'의 경우에도 毛沢東思想, 毛主席의 指示라는 이름 밑에 모든 混亂, 破壞를 하였던 까닭에 華国鋒体制로서 '바람직한 毛沢東思想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4人組' 批判을 効果있게 만드는 길이었다. 이것이 바로 路線의 '是非'를 明確히 하는 일이었다.
- 華国鋒体制는 이러한 目的을 위해 1956年의 毛沢東의 '10大關係論'을 公布하였다. 이어 1974年 4月에는 1949년부터 1957년까지의 毛沢東의 諸著作을 包含하는 '毛沢東選集' 第5卷을 發行하였다.
- '第10大關係論'의 內容을 보면 毛沢東의 1958年以後의 主張에 比較하면 溫建한 綜合均衡論이다. 또 이미 알려진 原本에도 손을 대어 華国鋒体制가 나아갈 方向에 合致되는 것으로 만들어 發表하였다.
- 이 '10大關係論'을 包含하는 '毛沢東選集' 第5卷도 人民公社와 大躍進運動以後 또는 文化革命以後에 크게 變化한 毛沢東思想에 比較하면 대단히 溫建한 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었다.

- 이러한 点으로 判断하면 華国鋒体制下에서의 '바람직한 毛沢東思想'이라는 것은 大躍進以前の 오소독스한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가까운 内容을 갖고 있었던 毛沢東思想이 된다.
- 이것과 關聯해서 張春橋가 '現在 毛沢東選集' 第5卷을 出版하는 것은 右派에게 利益을 준다', '10大關係論'은 '毛沢東思想을 體現하는 것이 못되므로 떼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 4人組의 '革命的 發言이 '根拠가 없는 것', '唯心論', '形而上學' 등으로서 批判되었다. 反面 '4人組'로부터 '毒草'로서 批判되었던 鄧小平의 '全党全國各項工作的 總綱에 關해서' 가운데서 提起되어 있는 '革命이란 生産力의 解放이다'라는 思考方式에 基礎를 둔 經濟的 土台優先論이 支配的인 것으로 되었다.
- 文化革命以來 가장 毛沢東的이며 中国的인 思考方式으로 받아들여졌던 '政治優先論'은 지금에 와서 '經濟에 正確' 有效하게 服務하는 것이다'라고 聲明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毛沢東思想의 한정 내지는 解釈은 '프로레타리아獨裁下에서의 繼續革命이라는 偉大한 輿論'에 까지 미치고 있다.
- 11全大會에서 있었던 政治報告에서 華国鋒은 繼續革命의 理論을 說明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生産關係속에서의 生産力에 適用하지 못하는 部分, 上部構造에 있어서의 經濟 基礎에 適用 못하는 部分은 언제나 生産力의 發展을 저해한다.'

따라서 반드시 上部構造領域에 있어서의 革命을 繼續하고 프롤레타리아 各 文化領域에 있어서의 獨裁를 包含하는 上部構造의 獨裁를 強化하고 社會主義經濟에 適用해야 한다. 반드시 生産關係의 領域에 있어서의 革命을 계속 遂行하며 社會主義公有制와 社會主義生産關係의 其他의 面을 단호 強化하고 生産力의 發展에 適用시켜야 한다. 반드시 技術革命을 推進하며 生産力을 円滑히 發展시키고 社會主義制度에서 日益 增加하고 있는 物質的 基礎를 獲得하게 하여 生産關係와 上部構造의 發展과 變革을 推進해야 한다.

- 이와같은 繼續革命理論은 文化革命時期에 있어서와 같이 '党内 走資派'를 打倒하고 '奪權'하는 것을 主要한 內容으로 하고 있던 繼續革命論과는 相當히 色彩가 다른 것이다.
- 11 全大會以後에 있어서는 繼續革命의 主要內容을 技術革命으로 받아 들이는 論調가 나타나고 있다. 毛沢東死亡 1 周年을 記念하는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 共同社說은 毛沢東思想에 대한 華國鋒체제의 限定에 대한 華國鋒체제의 基本的인 態度를 다음과 같이 表明하고 있다.
- 即 '毛主席이 어떤 問題에 관해서 말한 것은 正當한 것이었다. 그러나 相異한 時間, 다른 條件에서 같은 問題에 관해서 한 말은 때로는 微妙하게 矛盾되며 重點이 다른 것이 있으며 더구나 提起한 方式이 다른 경우가 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한 面 또는 한 分野에 있어서의 問題에 대해서는 毛沢東思想의 全体系에 서서 옳은 理解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것은 마치 '毛沢東思想의 全体系'라는 이름밑에서 毛沢東思想의 選択的 適用, 또는 選択的 非毛沢東化라고 까지 할 수 있다.

#### 나. 文化大革命에 대한 再評價

- 이와 같은 情勢下에서 文化革命의 意義도 또 再檢討되지 않을 수 없었다. 文革에서 主導的 役割을 遂行한 林彪, 江清, 張春橋, 挑元文등이 失脚되고 反面 文革에서 激烈한 批判의 對象으로 되었던 鄧小平, 羅瑞卿등이 權刀의 자리에 復歸하였다. 따라서 '文化大革命이란 무엇이었는가'라는 의문이 提起되는 것은 当然하다.
- 그러나 심볼로서의 毛沢東의 威信을 지킬 必要가 있는 以上 毛沢東의 이름과 密接히 關聯되었던 文化大革命을 簡單히 否定할 수는 없다. 때문에 文革에 青春을 불태운 大量의 젊은 世代를 구렁텅이에 집어 넣는 結果를 가져 오게 할 수도 없었으며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11全大會에서도 文化革命의 意義가 強調되었다.
- 그럼에도 文革으로 惹起된 傷處는 너무나 컸으며 文革에 대한 疑問도 大端히 컸다. 따라서 華國鋒體制는 첫째 文革에 마이너스面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둘째로는 文革의

定義를 바꾸는 것으로써 이 問題에 對處하려고 하였다.

- 즉 毛沢東의 말을 引用해서 '文革은 7分이 成果, 3分이 誤謬'라는 評價를 定着시켰다. 文革이 가져온 混亂은 두 種類가 있다. 하나는 實權派를 打倒하는데 必要했던 混亂이며 또 하나는 '4人組'가 權刀의 奪取를 企圖한 反革命의 混亂이었다라는 說明도 생겼다.
- 文革의 定義에 관해서는 '毛沢東選集' 第5卷에 관한 77年 5月の 論文에서 華国鋒이가 '프로레타리아文化大革命을 總括해서 말하면 劉小奇, 林彪 및 王洪文, 張春橋, 江青, 姚文元등의 '4人組'로 代表되는 党内走資派와의 鬪爭以外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4人組'를 文革의 批判對象者로 만들었다.
- 11全大會報告에서는 '11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第1次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은 '4人組'분쇄를 그 標識로서 勝利속에서 幕을 내렸다'라고 宣言하였다. 1969年の 9全大會의 林彪報告에서 '偉대한 勝利를 거두었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다.

#### 다. 党的 再建

- 党的 組織面에 있어서도 變化가 일어났다. 華国鋒体制은 正常化를 目標로 規律과 合法性의 回復에 의한 党的 權威의 確立을 重視하였다. 11全大會에서 採択된 改正黨規約

은 '4人組'에 의한 '突擊入党'과 같은事態의再現을防止하기 위해서 新党入党者에 대해서는 1年間の 予備黨員期間을 두는 制度를 復活하고 嚴重한 審査를 거치도록 하였다.

- 또 各級 黨委員會에는 規律委員會를 設置하고 規律의 遵守, 違反者의 摘發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規律違反者에 대해서는 處分節次를 詳細하게 定하였다. 各級 代表大會, 委員會의 選出에도 無記名投票에 의한다는 것이 規定되었다.
- 이 黨規約 改正에 관한 報告에서 葉劍英은 '우리는 執政의 黨이다'라고 말하고 整然한 黨의 指導를 強調하고 特히 注目되는 것은 '共產黨員은 黨組織의 決議와 上級黨의 決定에 대해서 自由主義의 態度를 取하고 滿足스러운 것은 實行하고 不滿스러운 것은 實行하지 않는 그런 것은 絶對로 해서는 안된다. 또 面從復背하고 擁護하는 척하면서 다른 짓을 하는 것은 絶對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점이다.
- \* 이것은 事實上 '造反'精神의 否定이며 紅衛兵을 動員해서 黨으로부터 党内実權派를 打倒하는 것과 같은 方式을 否定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華国鋒体制은 '革命의 黨'으로써 보다는 '執政의 黨'으로써 中共社会全体를 整然한 合法性을 갖고서 運営하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이렇게 되면 '4人組', '突擊入党', '突擊拔擢'이라는 '雙突幹部'를 비롯해서 党内에 存在하는 '4人組'의 一派 내지 그 影響을 받은 사람들을 対象으로 하는 華国鋒 政党的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課題는 1976年 末에 華国鋒에 의해서 1977年의 課題의 하나로 提起되었다.
- 많은 적든 '4人組'에 同調한 經驗을 갖고 있는 多數의 幹部는 '우리들은 4人組에게 愚弄당하였다. 그것은 思想 學習이 不足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參회하는 形式으로 處理하려는 傾向을 보였다.
- 鄧小平 復活以後 '突擊入党'의 實態가 보다 明確한 形態를 띠고 밝혀졌다. 또 '4人組'에 關聯된 사람들의 華国鋒 体制에 激烈하게 抵抗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따라서 '4人組'의 支持勢力을 徹底하게 분쇄하는 것을 目標로 肅清工作이 展開되었다. 이 肅清을 11全大會에 있어서의 華国鋒의 報告에서도 金후의 課題의 첫째로 提起되었다.
- 그렇지만 肅清工作이 全面的으로 徹底하게 實行하기 위해서는 相當한 問題가 存在한다. 肅清工作을 하는 데에는 各 單位의 指導部는 極히 大胆한 決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狀況이 存在한다. 또 이것이 中途半端으로 끝내려는 傾向도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
- 以外에 '4人組'가 疑惑의 눈으로써 打倒의 対象으로 삼

고 있던 知識人, 民族브르조아지와의 統一戰線政策의 拡充,  
'4人組'의 교란과 破壞에 의해서 世界의 科学의 先進水準  
과의 格差가 심해진 科学의 先進水準과의 格差가 심해진  
科学技術의 振興, 大学生 募集方法의 改正등에 의한 教育水準  
의 向上등의 一連의 施策은 中共의 歷史에 있어서 正常的  
인 時期였던 1958年以前에로의 復歸를 示唆하는 것이다.

#### 라. 鄧小平 再登場의 經過와 問題點

- 11全大會 및 1中全會에 있어서는 '4人組'時代의 老幹部  
= 民主派=走資派로서 批判의 對象이 되어 있던 사람들의  
地位가 上昇하고 新幹部의 比重이 저하하는 現象이 明確히  
나타났다. 이와같은 全體的 傾向이 劇적인 形態로 나타난  
것이 昨年 7月の 10期 3中全會에 있어서 復活한 鄧小平이  
었다.
- 鄧小平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4人組'와 激烈하게 對立  
함으로써 失脚된 人物이었다. '4人組'가 분쇄되자마자  
鄧小平이 再復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觀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77年初 무렵 中共의 指導者가 中共을  
訪問하는 外國人에 대해서 鄧小平의 復活이 머지 않아 이루  
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4人組' 失脚後에 發表되기 始作한 政策에 관한  
많은 論文은 '4人組'에 의해서 鄧小平指導下에 쓰여진

‘3柱의 大毒草’로서 批判의 対象이 되었던 總綱, 條例, 報告提綱의 3個의 文獻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7年 5月에 開催된 ‘工業은 大慶에서 배우다’ 全國會議등에 있어서도 明白히 이 3個의 文獻에 의거해서 論議가 이루어졌다.

- 그럼에도 實際에 있어서 鄧小平이 正式으로 復活한 것은 ‘4人組’ 粉碎以後 9個月이나 지난 3中全會議에 있어서였다. 이와 같이 鄧小平의 復活이 遲延된 것은 몇가지의 原因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그 主要한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첫째는 文革世代의 抵抗이다. 이들은 文化大革命의 時期에 鄧小平을 打倒한 經驗을 갖고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1976年의 非鄧小平運動에 積極적으로 參加하였다. 이들 行動의 모두가 반드시 ‘4人組’의 煽動에 맞장구를 친 結果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 中共社會에서 이미 하나의 繼曆으로써 存在하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鄧小平의 復活은 自己의 過去를 否定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와같은 쇼크를 輕減함이 없이 鄧小平 復活을 強行한다는 것은 安定과 發展에 逆行하는 結果밖에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 둘째는 指導部 内部에도 鄧小平復活에 反對하거나 아니면 消極적인 態度가 있었기 때문이다. 鄧小平失脚의 契機가

되었던 1976年 4月の 天安門事件에 있어서 재빠르게 이것을 '鄧小平批判'에 反對하는 反革命事件이라고 決定하였던 吳德을 비롯한 陳錫聯 등의 文革派 내지 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鄧小平復活에 反對하였다고 한다. 華国鋒 自身도 鄧小平批判演說을 하였다고 伝해지고 있어 微妙한 立場에 있었다고 判斷된다. 이와같은 鄧小平復活에 反對하는 勢力에 대해 國務院의 実務官吏와 軍内部의 鄧小平에 가까운 勢力이 鄧小平復活을 要求, 圧力을 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셋째는 鄧小平解任이 天安門事件直後 '偉대한 指導者 毛主席의 提案에 基礎하여', 政治局의 一致된 決定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는 점이다. 華国鋒을 第1副主席 首相으로 任命한 決定은 鄧小平 解任의 決定과 表裏一体의 關係였다. 따라서 鄧小平復活은 毛沢東의 決定을 뒤집어 엮는 것이며 그 威身に 傷處를 입히는 것이 되었다. 또 當時 党政治局 멤버의 責任問題, 主席, 首相으로써의 華国鋒의 地位와 正統性 등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 때문에 이것은 매우 慎重을 期해야 하는 問題였다. 그 理由로서는

- 첫째, '4人組' 批判이 進行됨에 따라 刀關係의 錘가 急速하게 '右'로 기울고 文革世代의 明示的인 発言이 漸次 困難해짐으로써 鄧小平復活의 條件이 갖추어졌다. 이

것과 함께 形式的이기는 하지만 鄧小平이가 自己批判을 하는 것으로써 鄧小平復活의 反對를 緩和하였다.

- 둘째, 이와같은 右傾的인 全体雰囲気의 變化를 背景으로 鄧小平復活促進派의 浮上으로 鄧小平復活이 不可避한 것으로 判断한 華国鋒의 決断에 의해서 事態가 收拾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潛在的 對立關係가 남아 있는 것은 完全히 払拭할 수가 없었다.

- 셋째, 가장 困難한 問題로 되어 있는 것은 鄧小平復活을 公表한 3中全会公報도 11全大会의 文献도 이 中央委員會 決議에 관해서 일체 言及하지 않음으로써 이 問題를 回避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것과 함께 非公式的인 形態로 天安門事件이 '反革命事件' 이었다는 評價가 否定되었다. 그리고 이것과 無關係한 形態로서 毛沢東의 威身을 保持하려는 試圖가 大大的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決議에 있어서의 毛沢東의 責任問題가 提起되지 않도록 하는 情勢를 만들어냈다.
- 華国鋒에 關해서는 華国鋒과 '4人組'가 對立關係에 있었다는 것, '4人組'에 批判된 '總綱' 등의 文献作成에 華国鋒도 関与하였다는 것을 公布하였다. 華国鋒과 鄧小平이 對立關係에 있다는 印象을 없애기 위한 努力이 이루어졌다.
- \* 鄧小平復活이 隨伴하는 問題點은 提起되지 않고 以上과

같은 措置를 취하는 것으로써 鄧小平이 復活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複雜한 事情과 함께 華国鋒과 鄧小平  
間의 潜在的인 對立關係는 解消되어 있지 않아 華国鋒体  
制下에서의 鄧小平의 役割과 이 兩者의 對立關係가 激化  
되어 權力鬭爭으로 展開될 可能性이 存在한다.

#### 4. 第5次 全國人民代表大會 以後의 華国鋒体制의 進路

가. '4人組' 摘發, 批判鬭爭

(1) '4人組'의 抵抗과 批判鬭爭

- '4人組' 摘發·批判鬭爭이 全國에서 大規模的으로 展開되어 '4人組' 以外에 數千名이 處刑되고 黨中央委의 3分之1, 全人民大會의 常務委員會의 거의 半이 交替되었다.
- 그러나 이것으로서 '4人組' 摘發·批判鬭爭이 끝난 것이 아니라 現在 '第3戰役'이라는 이름 밑에 과거 '4人組'에 追從 加担했던 者들에 대한 批判鬭爭이 계속 進行되고 있다.
- 今年 1月부터 解放軍報와 人民日報에 風派, 溜派, 震派, 梧派의 4種類의 人物을 批判한 論文이 發表되었다.  
(이것은 過去 4人組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음에도 現在 政治的으로 健在하여 높은 地位에 있는 人物을 가리키고 있다)

- 天安門事件 ( 1976年 4月5日의 清明節에 北京의 天安門廣場에서 일어난 民衆暴動事件 ) 2周年을 하루 앞둔 지난 4月 4日 北京의 教育省 近處의 壁에 吳德, 北京市革命委員會 主任 (市長) 을 指摘해서 批判하는 壁新聞이 나온 바 있다.
  - 吳德은 ' 4人組 ' 와 極히 가까우며 天安門事件當時 ' 極히 小數의 惡人이 革命의 方向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 라고 외치며 小平을 公然하게 批判하고 ' 4人組 ' 失脚後에도 鄧小平批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1977年 10月에도 北京大學의 壁新聞에 批判되었었다.
  - 마찬가지로 ' 4人組 ' 와 관련되어 批判되고 있는 要人으로서 陳錫聯 北京軍區司令官이 있다. 陳錫聯은 毛沢東의 조카인 毛遠新과 關係가 깊으며 天安門事件에서 大衆을 彈 壓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상기 吳德은 4人組 肅清 以後에도 北京市革命委 主任과 北京市黨委員會 第1書記로, 그리고 陳錫聯은 北京軍區司令官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 10月 이 두사람은 각각 그 職位에서 解任되었다.
- (4) ' 4人組 ' 의 強力한 抵抗
- 그러나 ' 4人組 ' 摘發·批判鬭爭에 대한 抵抗도 強力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華國鋒主席은 第5次 全人大會에서 行한 政治活動報告에서 ' 4人組 ' 摘發·批判에 關係서 ' 運動의 發展에는 차질이

있다. 小數의 地區와 黨委에서 運動의 展開가 遲延되거나 잘 進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摘發·審査 事業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指摘하였다.

- 또 78.4.23日字 人民日報는 '11全大會路線을 遂行하는 自覺을 높이자'라는 題下의 論說을 실고 다음과 같이 具體적으로 指摘하고 있다.

'同志의 머리속에는 아직 '4人組'가 퍼트린 害毒者의 影響이 남아 있으며 路線의 是非가 明確히 区分되지 않고 精神的 束縛이 끊어져 있지 않으며 問題에 逢着하면 如前히 疑心과 疑懼가 山積되어 있다', '또 하나는

11全大會路線의 遂行에 抵抗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깊게 中毒되어 過誤를 犯하고도 그것을 改善하려고 원하지 않는 小數의 者들이다.

이와같은 人間들에게는 諸政策에 遂行되지 않으며 指導部가 整頓되지 않으며 어떤자는 機會를 노리며 지금에 와서도 真相을 隱蔽하고 大衆을 抑制하여 '4人組' 摘發· 批判運動을 拒否하고 있다.'

- 11全大會後 地方의 省級(29個省市区)에서 黨大會를 開催하고 새로운 黨委員會가 成立된 곳은 지난 5月16日 現在 湖南, チベット, 廣西, 江蘇, 山西, 貴州, 廣東, 寧夏의 8個省区에 不過하다는 것은 '4人組'分子 또는 이의 同調者의 抵抗이 뿌리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한편 華国鋒体制은 새로운 時期에 있어서의 總任務로서 農業, 軍事, 工業, 科學技術의 '4個現代化'를 骨幹으로 하는 現代化路線을 標榜하고 이를 위해 知識人の 重視, 大學入試制度의 復活, 賃金引上, 物質的 刺戟 등 勞動에 應하는 分配政策을 實施하였으나 '階級鬭爭을 核心'으로 하고 있던 文革路線으로부터의 180度 轉換은 政治를 輕視하는 것은 아닌가, 修正主義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疑懼心을 國民에게 갖게 만들고 있다.

### (3) 旧幹部와 文革幹部와의 對立

- 華国鋒体制下에서 復活한 旧幹部와 文革期에 抬頭한 青年幹部와의 對立이 存在하고 있다. 文革期에 '走資派'로서 批判되어 失脚되었던 旧幹部가 大量으로 名譽를 回復하고 復活하였다. 한편 '4人組'摘發, 批判鬭爭에서 文革期에 높은 地位에 昇格했던 青年幹部가 많이 追放되었다.
- 그리하여 29個省·市·自治區의 地方 1及 行政機構의 主任과 副主任의 約 半數는 旧幹部로 自治되어 있으며 復活한 旧幹部들은 文革時의 '4人組'의 行패를 憎惡하여 '4人組'摘發·批判 鬭爭에서 徹底한 反擊에 나서고 있으며 한편 青年幹部는 '走資派'의 旧幹部의 復活에 激烈하게 抵抗하고 있다.
- 葉劍英副主席의 11全大會에서의 報告에 의하면 3,500萬 黨員中에서 文化大革命以來 入黨한 者가 半數에 가까우며

10全大会(1973年)以来 入党한 者が 700万名으로서 新黨員이 차지하는 比重이 大端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黨員의 隊列에 思想面, 組織面, 活動態度에서 不純한 狀況이 存在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 旧幹部와 青年幹部와의 對立調整, 黨組織, 지도구급의 整頓, 그리고 安定과 團結을 強化하는 것은 華国鋒体制가 當面한 主要問題가 되고 있다.

#### (4) 毛沢東思想 批判에 대한 抵抗

- 毛沢東主席이 스스로 發動을 進 文化大革命의 旗手로서 活躍한 '4人組'가 實際에 있어서는 '거짓左派, 진짜右派'라고 指彈되고 文革時에 '走資派'로 批判되었던 鄧小平等 旧幹部가 大量으로 復活되어 '4人組'가 해운 것은 反革命 修正主義이며 文革前 17年間の 路線, 政策이 正當하며 華国鋒体制야말로 毛主席의 革命路線을 繼承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文化大革命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하는 疑懼心이 생겨나게 된다.
- '70年代'라는 홍콩의 左派誌 最近号는 '華国鋒体制에 反對하는 逆流現象이 發生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北京과 上海에서 出版된 二卷의 小冊子の 內容을 紹介하고 있다.
- 하나는 '프로레타리아階級の 革命路線을 指向하는가, 아니면 右翼投降路線을 指向하는가'라는 題名으로 共青團上海

市委員會編（上海人民出版社發行，1977年）으로 되어 있으며 또 하나는 '復活，後退의 검은 구름에 挑戰한다'라는 題名으로 北京大學，青華大學大批判組著（人民出版社發行，

1977年）으로 되어 있다. 그 要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 華國鋒 등은 '毛主席의 逝去로부터 1個月도 되기 전에 右翼구대타를 일으키고도 反對로 革命派가 구대타를 企圖했다는 事實無根한 罪를 씨웠다. 그들은 黨權奪取後 革命派에 대한 迫害를 추진하였다.
- 毛澤東思想을 歪曲하였다. 華國鋒體制는 毛澤東思想에 대해서 반드시 '體系全體에서 正確한 解釋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의 몇개의 字句를 時間, 場所, 條件으로부터 떼어 내어 教條化하는 것은 斷乎히 反對한다'라는 見解를 強調하고 있는 것은 一種의 '修正主義 立場'이다.
- 毛澤東이가 스스로 일으키고 指導한 鄧小平批判과 右로부터의 反響을 中斷하고', '各 戰線, 各 領域에 있어서 右로부터의 反響의 요사스러운 風調를 全面的으로 일으키고 毛主席의 指示를 公開적으로 歪曲하고 黨의 基本路線을 바꾸어 브레즈네프 階級獨裁를 實行하였다.
- '右翼投降路線을 實行'하고 '資本主義를 復活시키고', 劉小奇修正主義의 專門家에 의한 工場支配, 技術第一, 制度萬能, 物質에 의한 刺戟, 洋奴哲學 및 自留地, 自由市場등

의 經濟主義的 措置를 回復시켰다. '

- ' 17年間을 全面的으로 否定할 수 없다'라고 露骨的으로 의치며', '文化大革命期間에 프로레타리아 階級이 劉小奇, 鄧小平등의 走資派로부터 奪取한 權刀을 또다시 빼앗아 부르조아階級에 의한 프로레타리아階級 獨裁를 實施하고 있다' '劉小奇가 없는 劉小奇修正主義를 實行하고 있다. '
- 1976年부터 그들은 革命幹部를 格下시키고 青年幹部를 公然하게 排斥하고 革命大衆을 苛酷하게 彈壓하고 毛沢東이가 生前에 罷免한 세 反動分子(反黨, 反社會主義, 反毛沢東思想의 幹部)를 또 다시 登場시키고 彭德懷의 옛 친구인 黃克誠, 劉小奇의 앞잡이인 周揚까지 例外로 하지 않았다.
- 華國鋒이가 毛沢東追悼大會에서 말한 '鄧小平批判과 右로부터의 反擊에 反對하는 鬪爭을 깊게 展開하자'고 한 말을 비롯하여 그가 1976년에 한 '鄧小平批判' 演說을 引用하고 華國鋒이가 毛沢東 死後 1個月도 안 돼 '돌연 180度 轉換하고' '投降派, 復活派로 變하였다'라고 非難하고 때문에 '그는 基本的인 카메레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5) 華國鋒과 鄧小平의 對立要素

- '4人組' 摘發·批判鬪爭과 現代化路線에 대한 批判의 소

리가 党中央指導部에도 反映이 안될 수 없는 것이라면 文革을 否定하는가, 繼承할 것인가, '4人組' 摘發·批判을 小教主謀者에 限定할 것인가, 徹底하게 할 것인가, 現代化 路線에서 紅(思想)과 專(技術) 중에서 어느 쪽을 重要視할 것인가, 軍의 現代化와 經濟의 現代化에서 어느 쪽을 優先할 것인가(銃砲와 빠타) 등의 主要問題가 党中央指導部內的 權力鬭爭의 争点으로 되어 있다.

- 党中央指導部の 構成을 系統的으로 보면 文革時에 抬頭한 華国鋒主席을 위시한 文革派(汪東興副主席, 紀東奎, 李德性, 吳德, 陳錫聯, 陳永貴, 倪志福 各 政治局員 등), 鄧小平副主席을 中心으로 하는 復活實權派(劉伯承, 徐向前, 聶榮臻, 韋國清, 烏蘭夫, 蘇振華, 張廷發 各 政治局員 등), 그리고 葉劍英 副主席을 지지하는 中間派(李先念 副主席, 耿飚政治局員 등)의 3개 구룹으로 大別된다.
- 이中에서 復活實權派(鄧小平派)가 圧倒的인 優位에서 있다. 文革에서 失脚했던 旧幹部가 多量으로 復活되어 鄧小平側近의 理論구룹의 1人者인 胡躍邦이 党中央組織部長에, 鄧小平直系의 趙奮壁이 公安相에, 鄧小平總書記時代의 有力한 幹部 張平化가 党中央委 宣傳部長에 就任하는 등 中央, 地方의 要職을 차지하여 鄧小平의 政治基盤強化가 急速하게 進行되고 있다.
- 한편 文革派(華国鋒派)는 弱化되는 傾向에 있으며 最近

의 政治局의 序列에서 鄧小平派의 劉伯承, 韋國清 兩氏의 地位가 上昇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月 華國鋒派인 吳德과 陳錫聯의 兩氏가 各各 職位에서 解任됨으로써 政治局內의 배런스는 均衡이 깨져 鄧小平에게 決定的으로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

- 華國鋒主席과 鄧小平副主席 사이에는 '4人組' 摘發·批判 鬭爭과 現代化路線의 推進方法을 둘러싸고 意見의 對立이 생기고 있다. '4人組' 摘發, 批判鬭爭이 鄧小平의 指導下에 推進되고 있으며 '4個現代化' 實現을 위해서는 '4人組' 摘發·鬭爭을 徹底하게 推進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意見과 될 수 있는 한 打擊的인 면을 적게 하여 '病을 治療하여 사람을 살린다'는 方針을 取해야 한다는 意見으로 갈라져 對立하고 있다.

#### 나. 現代化路線

##### (1) 經濟成長의 鈍化

- 1977.8.12 11全大會를 開催한데 이어 今年 2.16 第5次 全國人民代表大會를 開催하여 黨과 政府의 體制를 確立한 華國鋒政權은 現代化路線을 내세우고 政治協商會議 (統一戰線의 組織)와 全國科學會議, 全國教育工作会议 등의 全國的인 規模의 主要會議를 연달아 開催하였다.
- 그리하여 知識分子의 解放, 學制改革, 勞動保障制의 實施등

과 함께 4個現代化(農業, 工業, 軍事, 科學技術)의 實現을 目標로 諸政策을 活潑히 展開하였다.

- 1976年의 中共經濟는 毛沢東, 周恩來, 朱德 등의 연달은 死亡과 4人組와 華國鋒體制와의 權力鬭爭으로 因한 政情不安으로 經濟發展의 Tempo가 顯著하게 鈍化되었다.
- 美商務省(1)이 推計된 바에 따르면 實質 GNP의 成長은 2~3%에 머물고 第4次5個年計劃(1971~75年)의 年平均成長率 6.5%를 크게 下廻하였다. 이것은 工業生産이 前年比 3.4% 增加에 不過하여 第4次 5個年計劃期間이 年成長率 10%를 크게 下廻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粗鋼生産은 2,300~2,400萬톤으로 前年の 2,600萬톤 水準에도 未達하였다. 最近 10年間 年成長率 20~25%를 나타낸 것과 對比하면 增産 Tempo는 크게 低下하고 있었다.
- 農業生産은 前年比 1.9% 增加였으나 食糧全體로서는 前年の 2億800萬톤(大豆 包含)에서 2億7,650萬톤으로 減少하였다.
- 그러나 4人組의 影響이 一掃됨으로써 1977년부터는 工業生産의 回復이 本格化되었다. 이런 點으로 보아 '4人組'가 生産에 끼친 影響은 至大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 (2) 現代化된 社會主義 強國의 建設計劃

- 全國人民代表大會(78.2.26)에서 한 華國鋒首相의 政府

活動報告中에서 中共의 現代化路線에 관한 部分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는 向後 23年の 國民經濟發展의 構想을 하고 있는 바 20世紀末에는 우리나라의 主要農産物의 單位面積當 收穫量은 世界의 先進的 水準에 달하든가 그것을 上廻하게 되며 主要工業製品의 生産量은 各各 發達한 資本主義國에 接近, 따라 잡고, 능가하겠금 되지 않으면 안된다.
- 農業生産은 機械化, 電氣化, 水利化가 最大限으로 實現되고 工業生産은 主要部分이 オート멘손화하고 勞動生産性은 大幅 向上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現代科學技術의 成果를 폭넓게 運用하고 새로운 材料와 새로운 에너지를 크게 利用하고 主要한 製品과 生産工程의 現代化를 實現하고 經濟技術指標가 각기 世界의 先進水準에 接近, 따라 잡고, 능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때에는 發達한 社會主義的 生産力을 強化하고 우리나라의 社會主義的 生産關係는 일단 더 發展하고 完全한 것이 되며 프롤레타리아獨裁階級은 堅固해지고 國防力은 一層 強大해지며, 人民의 物質的, 文化的 生活水準도 크게 向上되며 우리나라는 現代化된 社會主義 強國으로서 새로운 雄大한 모습을 世界의 東方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이 狀大한 任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1976年부터 1985年까지의 10年間이 열쇠이다. 國務院은 1975年에 作成한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要綱(草案)을 補完, 修正하였다.

10個年計劃에 의하면 이 10年間에 우리나라는 獨立한 比較的 整頓된 全國의 工業體系와 國民經濟體系를 만들어 내고 西南, 西北, 中南, 華東, 華北, 東北의 6個地區의 經濟體系를 基本的으로 만들어내며 同時에 內陸을 強大한 戰略的 後方基地로 構築한다.
- 1985년에는 食糧의 收穫量은 4億톤, 粗綱의 生産量은 6,000萬톤이 된다. 1978年에서부터 1985年까지의 8年間 우리나라의 農業生産 總額의 年間成長率은 4~5%, 工業生産總額의 年間成長率은 10%以上이 된다. 이 8年間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主要한 工業製品의 增加率은 過去 28年間の 그것을 훨씬 上廻하게 된다. 이 8年間の 國家의 財政收入과 基本建設의 投資額은 各기 過去 28年間の 總額에 相當한다.
- 10個年計劃이 實現되면 우리나라의 經濟, 技術水準에는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며 物質的 基礎가 一層 強固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3個의 5個年計劃으로 努力을 쌓아 우리나라의 國民經濟를 世界의 前列에 서게할 수가 있다.

- 計劃을 現實에 轉換시킴에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것은 党的 基本路線을 堅持시키고 意氣旺盛하게 目標를 向해서 많이 빠르게, 훌륭하게 浪費가 없이 社會主義를 建設한다는 總路線을 堅持하고 獨立自主, 自力更生, 刻苦奮鬥, 勤儉建國의 方針을 堅持하고 毛主席이 提示한 社會主義建設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 이 建設을 實現함에 있어서 國民經濟의 全般에 걸쳐 다음과 같은 6個의 強力한 措置를 講究한다.
  - 1) 全國적으로 農業에 專念한다.
  - 2) 基幹産業의 發展速度를 빨리하고 이를 善導하는 工業의 役割을 發揮시킨다.
  - 3) 商業活動을 훌륭히 하여 對外貿易을 發展시킨다.
  - 4) 社會主義의 勞動競爭을 되풀이 擴大하고 技術革新과 技術革命을 크게 實施한다.
  - 5) 統一的인 計劃을 強化하고 中央과 地方과의 2個의 積極性을 發揮시킨다.
  - 6) 各人은 能力에 따라서 일하고 勞動에 應해서 分配를 받는다는 原則을 堅持하고 人民의 生活을 漸次的으로 改善한다.

다. 軍의 現代化 計劃과 '4人組'의 反撥

- o 11全大會에서 採択된 新黨規約의 總綱中에 '4個의 現代化'

의 趣旨가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4個의 現代化'는 現在 黨과 軍을 不分하고 指導部의 最大關心事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國防의 現代化'는 가장 緊急을 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國防의 現代化'가 中共軍에 있어서 具體적인 形態로 始動이 된 것은 1975年 7月 以後이다. 그러나 '國防의 現代化'의 推進과 함께 羅瑞卿, 譚政을 비롯한 旧幹部가 大量 登用됨으로써 '4人組'의 反撥을 사게 되어 차질을 가져 오게 되었다.
- 文化大革命의 過程에서 失脚된 旧幹部의 急激한 大量登用은 당연히 文革重視派의 反撥을 招來하여 論争과 紛糾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直後부터 水滸伝과 松江批判이 始作되고 翌年 1976年 4月의 '天安門事件'에 있어서의 鄧小平의 失脚이 發生할때까지 이르는 政治的 激動은 '國防의 現代化'를 위해 實施되고 있거나 實施하려고 했던 諸措置에 커다란 否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 1976年 4月의 '天安門事件'以後 또 다시 '4個의 現代化'는 '4人組' 등의 激烈한 批判의 對象이 되었으며 이것이 再評價되기는 同年 10月의 北京政變(4人組事件)以後의 일이다.
- 이와 같이 '4個의 現代化'에 따른 國防의 現代化 計劃이 國家의 基本方針으로 되기 까지는 많은 障礙가 있었

- 다. 1976.2.4日字 人民日報에 실린 總參謀軍訓部 理論組의 論文은 '4人組'가 '軍의 現代化建設'을 破壞하고 '軍事工業發展'을 破壞하였다고 激烈하게 批判하고 있다.
- 그리고 1976.12.30日字 人民日報에 掲載된 總參謀部 大批判組의 論文은 '4人組'가 民兵을 改造하고 '第2武裝'化하려고 企圖하고 1973年 党 10全大會以後에 研究作戰方案을 策定하고 準備焦土抗戰을 主張하였다고 말하고 그 背後에는 軍의 建設의 方向과 이것을 理論化하는 戰略 方針을 重要하고 論爭이 있었다는 事實을 立証하였다.
  - 1972年以後에 建設된 '都市勞動者民兵'의 補充을 優先하고 이른바 '國民皆兵的인 大衆軍隊'의 增強에 의거해서 縱心이 깊은 防禦戰略의 方針을 實行한다는 主張이 提出됨으로써 '軍의 現代化' 特히 正規軍, 그중에서도 各 軍種, 兵種의 補充計劃이 抑制되었다.
  - 그러던중 '4人組事件'以後 文革急進分子가 除去됨으로써 軍의 現代化諸計劃의 지체를 回復해야 한다는 것이 既定의 方針으로 되고 對蘇危機感이 이에 隨伴되어 緊急性을 띠게 되었다.
  - 鄧小平의 復職이 1977年 7月의 党第10期 3中全會에서 決定되어 또 다시 軍의 現代化諸計劃의 實行이 急速하게 始動되기에 이르렀다.

## 라. 對外政策

- 華国鋒体制은 對外政策面에서도 意慾적인 姿勢를 보이고 積極적인 外交活動을 展開하였다. 東南亞細亞 諸国에 對한 政府高位層의 巡訪外交를 어느 때보다도 強化하는 한편 美國, 日本을 비롯한 西歐諸国과의 經濟, 技術交流와 貿易을 擴大하여 對西歐依存度を 높이고 있다.
- 그러나 中共의 對外政策의 基本路線은 '3世界論', 即 '蘇聯主敵論'을 基本으로 하면서 對蘇國際統一戰線의 形成을 企圖하고 있다는 点에서도 變化하지 않고 있다. 1978年 5月과 8月에 華国鋒首相 自身이 北傀를 訪問한데 이어 同年 8月 루마니아, 유고等地에의 巡訪外交에 나선 것은 對蘇牽制 統一戰線形成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졌다.
- 이 '3世界論'은 1974年 4月 유엔特別總會에서 毛沢東 生存當時 副首相이었던 鄧小平에 의해서 全世界에 宣言됨으로써 中·蘇 兩國의 論争과 對立의 争点으로 되었다. 鄧小平은 世界를 3個의 世界로 区分하고 美國과 蘇聯은 第1世界에 屬하며 發展途上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第3世界에 그리고 이 두 世界의 中間에 놓여 있는 發展된 國家들이 第2世界에 屬한다고 말하고 中共은 發展途上國家이며 따라서 第3世界에 屬한다고 主張하였다.
- 그 以後 鄧小平이 公開發적으로 宣言한 바에 따르면 蘇聯과 美國은 2個의 霸權國家라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그들

의 霸權을 擴張하려고 血眼이 되어 있는데 반해 美國은 그 霸權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蘇聯側이 一層 危險하며 帝國主義的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社會帝國主義로 變化한 蘇聯은 世界大戰의 가장 危險한 震源地이며 同時에 世界 人民의 最大의 적임으로 美國을 비롯하여 第3世界와 第2世界는 團結하여 蘇聯의 膨脹을 阻止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볼때 中共의 '3世界論'은 바로 蘇聯主敵論이며 따라서 第3世界, 第2世界와 友好關係를 맺고 中共軍의 現代化를 위해 EC, NATO 諸國에 接近하고 最新의 軍事科學技術의 導入을 위해 美國, 日本과 交流하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되어 있다.
- '4人組'가 對外政策에 준 影響은 明確하지 않으나 이데올로기 一辺倒의 觀點에서 中共을 이끌고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中·蘇關係에서 過度하게 이데올로기問題가 介入되기도 하고 東南亞細亞에 革命勢力에 대한 露骨的인 介入등이 이루어졌다.
- 따라서 國際關係와 國家間의 關係에서 보면 '4人組'의 影響은 最適路線의 攪亂要因이 除去된 후의 中共의 外交政策은 더욱 더 最適路線에 接近하는 傾向을 強化하고 있다. 特히 發展된 社會主義國家建設을 目標로 하는 '4個의 現代化'路線을 標榜하고 있는 이때 이러한 傾向은 더욱 明白해

질 것이다.

- 그러나 '3世界論' 즉 蘇聯主敵論에 基礎를 두고 反蘇·親美的인 中共의 對外政策의 問題는 알바니아 共産党이 非難하고 있는 것과 같이 階級鬭爭과 革命鬭爭에 反하는 것이라는 批判을 回避할 수 없다는 것이다.

### 5. 毛沢東思想에 對한 挑戰

가. 黨規約과 憲法改正에 나타난 毛沢東思想의 變化

#### (1) 新旧 黨規約 比較

	10 全大会 (1973年)	11 全大会 (1977年)
中国共産党	○ 中国共産党은 프로레타리아 階級の 政党이며 프로레타리아 階級の 前衛이다.	○ 中国共産党은 프로레타리아 階級の 政党이며 그 階級 組織의 最高 形態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階級の 先進的 分子로 構成된 強力한 前衛組織이며 階級の 敵과 鬭爭에서 프로레타리아 階級과 革命大衆을 指導한다.

	10全大会 (1973年)	11全大会 (1977年)
毛主席의 位置	○ 없 음	○ 偉대한 指導者, 教師인 毛 沢東主席은 中国共産党的 創立者이며 現代의 가장 偉대한 마르크스·레닌主義 者이다.  ...毛主席의 旗幟는 우리党 을 團結鬪争을  통해서 勝 利로 引導하는 偉대한 旗 幟이다.
文化大革命	○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 은 社会主義의 条件下에 서 프로레타리아階級이 브르쵸아階級과 모든 搾 取階級에 反對하고 프로 레타리아獨裁階級을 堅固 히 하고 資本主義復活을 防止하기 위한 政治大革 命이다. 이와 같은 革 命은 今後에도  여러번 行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은 社会主義下에서 프로레타리 아階級이 브르쵸아階級과 其他 모든 搾取階級에 反 對하고 프로레타리아 階級 鬪争을 堅固히 하고 資本 主義 復活을 防止하기 위 한 政治大革命이었다. 이 와 같은 性格의 政治革命 은 今後에도  여러번 實施 될 것이다.



	10 全大会 ( 1973 年 )	11 全大会 ( 1977 年 採択 )
4 個의 現代化	없 음	○ 党은 民族人民을 指導하고 中国을 今世紀內에 近代的인 農業, 工業, 国防, 科學 技術을 갖는 強力한 社會主義國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反 潮 流	○ 全党的 同志는 敢然히 潮流에 逆行하는 革命的 精神을 가지며 마르크스主義를 해야 하는 것으로 修正主義를 해서는 안된다. 團結해야 하며 分裂해서는 안된다. 公明正大해야 하며 陰謀術數를 凶謀해서는 안된다. (三要, 三不要) 라는 原則을 堅持한다.	○ 党的 모든 同志는 이들 3 個의 基本原則 (三要, 三不要) 에 逆行하는 어떠한 潮流에도 反對하는 革命的 大胆性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10 全大会 (1973 年)	11 全大会 (1977 年)
党 員	<p>○ 黨員은 (1)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沢東思想을 學習, 修正主義를 批判한다. (2) 大多數의 사람들의 利益을 圖謀한다. (3) 大多數와 團結한다. (4) 批判과 自己批判을 行한다.</p>	<p>○ 旧規約의 黨員義務 5 個項目에 (1) 派閥的 組織 活動에의 參加를 拒否, (2) 党과 國家의 秘密을 嚴守, (3) 3 大革命運動의 模範이 된다는 追加 正式 入党前에 予備黨員規定을 新設, 그 期間은 1 年, 또 最高는 2 年</p>
党内民主	<p>○ 批判을 抑制하거나 報復을 한다고나 하는 것은 絶對 許容되지 않는다. 集中이 있으면 民主도 있으며 規律도 있으면 自由도 있으며 意志의 統一이 있으면 個人의 氣分이 伸張되고 潑刺하고 活潑한 政治的 局面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p>	<p>○ 全党은 党内 民主主義를 完全하게 發揚한다. 모든 黨員은 '알고 있는 것을 全部 말하고 그것을 留保함이 없이 말한다' '發言者를 非難하지 않으며 發言者는 그 말로 因해서 警告를 받지 않는다' 라는 原則을 適用한다. 党은 集中主義와 民主主義, 規律과 自由, 精神의 團結 및 個人的인 精神的인 安定과 活潑</p>

	10 全大会 ( 1973 年 )	11 全大会 ( 1977 年 )
		<p>성이 存在하는 政治的狀況을 만들기 위해 鬪爭하지 않으면 안된다.</p>
<p>党 組 織</p>	<p>○ 党的 各 指導機關은 老·中·靑의 3 結合의 原則에 基礎하여 民主的 協議, 選舉에 의해서 생긴다.</p>	<p>○ 党大会의 代表 및 各級 党委員會의  멤버는 民主的 協議를 거친 후에 老·中·靑의 3 原則에 基礎하여 無記名投票에 의해서 選出된다. 党中央委, 県級以上의 地方单位, 聯隊級以上의 軍党委에 規律審査委員會를 設立한다. ( 黨員의 規律, 教育等에 對한 責任을 진다.)</p>
<p>國際認識</p>	<p>○ 中国共産党은 全世界의 참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政党, 組織과 團結하고 全世界의 프로레타리아階級, 被压迫人</p>	<p>○ 旧規約에서와는 다르게 '美·蘇 超大国의 霸權主義 反對'가 '蘇·美超大国의 霸權主義反對'로 變更되어 있다.</p>

	10全大会 (1973年)	11全大会 (1977年)
	<p>民, 被压迫民族과 團結하고 美·蘇超大國의 霸權主義에 反對하기 위해서 帝國主義, 現代修正主義, 各國 反動派를 打倒하기 위해 鬪爭한다.</p>	

(2) 中共의 新旧憲法 比較

	75年 憲 法	78年 憲 法
革 命 段 階	<p>○ 社會主義社會는 相當히 긴 歷史的 段階이다. 이 歷史的 段階에 있어서는 始終, 階級, 階級矛盾, 階級鬪爭이 存在하여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와의 二個의 線의 鬪爭이 存在한다. 이들 矛盾은 프롤레타리아階級 獨裁下에 있어서의 繼續 革命의 理論과 實踐에 의해서만 解決할 수가 있다 (前文)</p>	<p>○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을 거쳐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偉大한 勝利를 거두었다. 프롤레타리아階級獨裁는 더욱 堅固, 強化되어 이미 初步적으로 繁榮되고 富裕한 社會主義國家가 되었다. 毛思想의 指導 밑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부르조아階級에 對한 鬪爭을 堅持한다 (前文)</p>

	75年憲法	78年憲法
對外關係	○國際關係中에서 우리들은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를 堅持하고 永遠히 超大國이 되지 않으며 霸權主義에 反對한다 (前文)	○第3世界諸國과의 團結을 強化하고 社會帝國主義 超大國의 霸權主義에 反對하고 새로운 世界戰爭에 反對한다 (前文)
經濟建設	○國家는 革命에 힘을 두어 生産을 促進하고 일을 促進하고 戰爭對備를 促進하는 方針을 實行하고 農業을 基礎로 해서 工業을 引導하며 人民의 物質生活과 文化生活을 一步 一步 改善한다 (第10條)	○國家는 높은 目標를 向하여 많이, 빠르게  훌륭하게, 浪費가 없이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總路線을 堅持하고 國民經濟를 計劃的으로 發展시키고 人民의 物質的 生活과 文化生活을 서서히 改善한다. (第11條)
基本任務	○繼續해서 革命鬭爭, 生産鬭爭, 科學實驗의 3大革命運動을 擴大하고 獨立自主를 貫徹하며 自力更生에 依存, 戰爭과 自然災害에 對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前文)	○繼續革命을 堅持하고 階級鬭爭, 生産鬭爭과 科學實驗의 3大革命을 擴大하고 今世紀內에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 近代化한 社會主義國家를 構築한다 (前文)

	75年憲法	78年憲法
統一戰線	○ 勞働者階級이 指導하는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各民族人民의 大團結을 堅固히 하고 革命統一戰線을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前文)	○ 勞働階級이 指導하는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広範한 知識人 과 勤勞大衆, 愛国民主党派, 愛国人士, 台湾, 香港, 마카오, 華僑同胞를 結集한 革命統一戰線을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前文)
文化革命	○ 프로레타리아階級은 文化革命을 包含한 上部構造에 있어서 부르조아階級에 대한 全面的인 独裁를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 文化, 教育, 文学, 芸術, 体育,  의료·위생, 科学研究는 모두 프로레타리아階級の 政治에 奉仕하고 生産勞動과 結合되지 않으면 안된다 (第12条)	○ 國家는 教育事業을 發展시키고 人民의 文化, 科學的水準을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國家는 藝術의 發展과 科學의 進歩를 促進시키고 社會主義 文化의 繁榮을 促進시키기 위해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方針을 實行한다. (第13条, 14条)
司法制度	○ 檢察機關의 職權은 各級 公安機關에 의해서 行使된다. 檢察과 事件審議는 모두 大衆路線을 取하지 않으면 안된다	○ 人民法院은 大衆代表의 陪審員制度를 實施하고 被告에는 辯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裁判은 公開한다 (第41条)

	75年憲法	78年憲法
司法制度	<p>重大한 反革命事件에 대해서 는 大衆을 動員해서 討議와 批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25条)</p>	<p>最高人民檢察員은 國家機關職 員, 公民이 憲法과 法律에 순응하는가, 아닌가에 관해서 檢察權을 行使한다 (第43条)</p>
權利義務	<p>○公民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 는 中國 共産黨의 指導와 社會主義制度를 擁護하고 憲 法과 法律에 순종하는 것이 다. (第26条)</p>	<p>○公民은 言論, 信仰, 通信, 出 版, 集會, 結社, 行進, 示威, 怠業의 自由를 가지나 憲法 과 法律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3章)</p>
台灣海峽	없음	<p>○台灣은 中國의 神聖한 領土, 반드시 台灣을 解放하고 祖 國統一의 大業을 完成한다. (前文)</p>
全人代	<p>○全國人民代表大會는 中國共産 黨의 指導밑에 있는 國家權 力의 最高機關이다. 任期는 5年 (第16条)</p>	<p>○全國人民代表大會는 最高國家 權力機關이다 (第20, 21条)</p>

### (3) 党規約과 憲法改正에 대한 分析 評價

#### (가) 党規約改正

11全大会(1978.8.18)에서 採択된 新党規約은 10全大会의 党規約을 大幅 改正함으로써 規律과 合法性의 回復에 의한 党的 權威의 回復을 重要視하고 特히 '4個現代化'를 党規約에 規定함으로써 華国鋒体制가 指向하고 있는 現代化 路線을 뒷받침하고 있다. 新旧党規約의 差異点과 그것이 意圖하는 意味内容은 다음과 같다.

- 特異한 点은 党規約總綱에서 '毛沢東은 中国共産党的 創立者이며 現代의 가장 偉大한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評價하며 毛沢東의 業積을 讚揚하고 있다는 点이다. 이것은 旧党規約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와같이 党規約에서 毛沢東의 偉大性을 規定한 것은 現 華国鋒体制가 毛沢東의 後光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自己들의 政治的 生命의 安定을 기할 수 없다는 配慮에서 나온 것으로 分析된다.
- '4個의 現代化'路線에 관한 것이 역시 總綱에 新設·規定되고 있다. 이것은 華国鋒体制가 中国社会를 今世紀內에 先進國의 隊列에 서는 強力한 社会主義國家로 만들려는 意慾을 나타낸 것으로 判断된다.
- 또한 新党規約에는 新入党者에 대해서 1~2年의 予備黨員의 生活을 하도록 하는 制度를 復活하고 嚴格한



審査와 아울러 各級 党委員會에 規律委員會를 設置하여 黨員의 規律의 遵守, 違反者의 適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文革時에 있었던 것과 같은 '突擊入黨', 新入黨員에 의한 既存黨體制에 대한 奪權, 造反行為의 再現을 防止하고 나아가 過去 毛沢東의 決定에 의거했던 體制에서 組織, 制度를 通해서 黨을 整備 安定시키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으로 分析된다.

- 그리고 黨代表 및 各級 黨委員會의 成員을 無記名投票에 의해서 選出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 (나) 憲法改正

1978.3.7에 改正 發表된 中共의 新憲法은 1975年의 憲法을 全面的으로 改正하고 法的으로 整備된 社會主義 國家建設의 基本路線을 明文化하고 있다. 이 新憲法은 '今世紀內에 中國을 先進國과 어깨를 같이 하는 社會主義 國家로 만든다'는 1975年의 舊憲法과 比較하여 불배 新憲法이 갖는 特色은 다음과 같다.

#### 3 權分立

- 全國人民代表大會는 1975年의 舊憲法에서 '中國共產黨의 指導下'에 있었다. 이것을 新憲法에서는 削除되어 '國權의 最高機關'으로 됨과 同時에 國務員의 關係의 任命, 最高檢察員 檢察長의 選出, 戰爭과 平和(講和)의 決定, 專門委員會의 設置등 1975年의 舊憲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權限이 賦與되었다.
- 한편 行政府인 國務院도 '國家의 最高行政機關이다'라고 規定되었으며 司法權에서는 人民法院의 陪審員制度和 公開

의 原則, '被告가 辯護를 받을 權利'가 復活되었다.

- 또한 從來 公安部 밑에 있었던 人民檢察院이 人民代表大會에 의해서 選出하도록 하게 되어 檢察權이 行政權으로부터 獨立하였다. 이것은 1954年 憲法의 規定의 復活이며 司法權의 獨立에 一步 接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監察院의 權限도 '國務院 등 各種 機關과 公民에 대한 檢察權의 行使'라고 明確히 規定되었다.

### 統一戰線

- 經濟建設의 템포를 빨리하기 위해 專門的 知識을 갖는 知識人의 活用, 科學技術研究의 提高, 教育制度의 擴大와 充實, 在外僑胞를 包含한 廣範한 統一戰線의 結成 등이 要求되고 있다. 이를 위해 新憲法에서는 經濟土台위에 形成된 上部構造(政治, 法律, 哲學, 文化 등)에 관한 各項에 大膽한 改造를 斷行하였다.

우선 前文의 '革命的 統一戰線의 範圍'를 1975年의 舊憲法보다 具體적으로 規定하였다. 이로 因해 知識人과 愛國民主黨派, 台灣同胞, 華僑同胞는 憲法上으로 明記된 '我方'으로 간주되었다.

- 또 百花齊放, 百家爭鳴을 實行한다'라고 總綱의 14條에 새로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科學技術의 重視를 獨立한 1個項目으로 追加하고 專門家의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改正한 것 등 知識人의 立場을 安定된 것으로 만들었다.

## 基本權利와 義務

- 公民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의 諸規定을 1975年の 4個條에서 16個條로 大幅으로 擴大하고 內容도 具體化되었다. 우선 公民의 權利는 1975年の 舊憲法에 있었던 諸規定에 (1) 일하는 權利中에서 勞動報酬를 漸次的으로 增加시키려는 國家의 配慮, (2) 勞動時間과 休暇時間의 制定, (3) 社會保障, 社會救濟등의 充實, (4) 教育施設의 整備, (5) 醫學研究, 文學藝術등의 文化活動의 自由와 國家의 援助 등이 새로 追加되었다.
- 이와같은 改正은 從來의 推象的인 權利의 規定을 어떻게 實現, 保障해 나갈 것인가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生活의 安定을 期하여 사람들의 에너지를 結集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面에서 賃金, 分配에 관한 規定도 從來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能力에 따라서 일하고 勞動에 따라서 分配한다'라는 社會主義原則의 規定에 '精神的 겨러를 주로 하면서 物質的 겨러를 結合시키는 方針을 實行한다'라는 것을 追加로 明記한 것은 物質的 刺戟도 無視할 수 없게된 現實을 直視한 것으로 注目된다.
- 1975年の 舊憲法에서 '人民의 諸權利'로서 言論, 通信, 出版, 集會, 스트라이크등의 權利를 規定하고 있었으나 이것과는 別途로 獨立한 '大字報'를 붙일 權利'를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新憲法에서는 이것을 모두 '公民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를 綜合하여 法體系로서 確固한 것으로 하였다.

## 나. 毛沢東思想에 대한 再評價 運動

### (1) 毛沢東의 絶对性 神格化에 대한 挑戰

中共은 "國父格으로 瞻敬"해 오던 故毛沢東主席이 死亡한 지 1年10個月만에 毛沢東의 絶对性에 終止符를 찍고 그가 1958年부터 2年동안 積極 推進했던 大躍進運動이 失敗했음을 公式 承認하고 毛沢東神格化에 批判을 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同時에 前国防相 林彪 및 "4人組" 追從勢力에 대한 肅清作業을 強化해 나갔다.

- 1978. 7. 1日字 人民日報와 紅旗는 中共黨 創立 57周年 記念共同社說에서 毛沢東이가 1962. 1.30日의 党中央委擴大會議에서 大躍進運動 等 自身이 推進한 經濟政策이 失敗한데 대한 自我批判을 하면서 "누구든 過誤를 저지른 자는 自己批判을 해야 한다"고 強調한 演說文을 거의 그대로 掲載하였다.
- 1978. 9. 4日字의 人民日報論說은 毛沢東의 思想이 마치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全能的인 것으로 過大 宣傳된 것은 前国防相 林彪 및 "4人組" 一黨이 毛沢東의 思想을 그들의 目的에 맞도록 歪曲시킨 結果라고 指摘하면서 毛沢東 自身도 그의 思想과 政策이 恒常 옳고 全能的인 것으로 생각치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 人民日報는 특히 毛의 思想이 煽動的으로 誤導된 것은 그의 말이 모두 真理라고 主張된 文化革命 期間中

이었다고 指摘하였다.

- 1978.10.26 - 28日間에 걸쳐 中共의 光明日報와 人民日報는 毛沢東의 著書나 演說에 登場하는 말을 담은 毛沢東語錄에 대한 批判을 展開하였다. 즉 10.27日字 人民日報는 記事를 통해 毛沢東語錄이 4人組와 關聯이 있는 前國防相 임표에 의해 編輯되었다고 確認하면서 毛沢東思想은 "毛의 말 한마디가 다른 1萬마디의 말보다 훌륭하다"는 임표의 編輯方向으로 말미암아 眞實性和 歷史的 脈略을 잃어 버렸다고 指摘하였다. 1978.10.26日字 光明日報는 "毛가 中國革命으로 탄생한 가장 탁월한 指導者이나 그는 神이 아닌 人間이었다"는 內容의 記事를 掲載하였다.
- 1978.10.2日字 人民日報는 毛沢東을 "一種의 半神半人"으로 描写하거나 그를 稀代の 天才로 比喩하는 것은 "重大한 冒瀆"이라고 宣言하였다. 이 人民日報는 지난 1971年 飛行機墜落事故로 死亡한 前國防相 임표 批判記事에서 임표와 "4人組"는 毛沢東을 "黨과 群衆위에 올려 놓으려고 企圖하는 한편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沢東思想에 神秘的인 色彩를 加味하고 毛沢東思想을 人民들의 손발을 묶는 一種의 獨斷論으로 변모시키려 했다고 非難하였다.

(2) "大字報"를 통한 毛沢東批判運動

毛沢東의 이름을 直接 指摘하며 그를 批判하는 "大字報"가 1978. 11. 19日부터 約 2週間 北京市内에 나붙음으로써 毛沢東 死後 싹트기 시작하였던 毛沢東批判과 毛沢東思想 再評價運動이 本格化되었다.

- 1978. 11. 19 北京의 변화가인 長安거리에 "天安門事件"을 둘러싼 毛沢東의 誤謬를 批判한 檄新聞이 登場하였다.
- 1978. 11. 20. 北京의 長安거리에 (1) 天安門事件을 公開 裁判하라고 要求한 "大字報" (2) 最近 10年間の 中共 歷史를 故周恩來首相을 中心으로 하는 "民主路線"과 "家族的 ատ소적인 路線"間的 鬭爭으로 把握하면서 毛沢東을 完全히 後者に 包含시키는 內容의 "大字報"와 그리고 (3) 党主席 華国鋒이가 쓴 詩集 "天安門詩抄"의 題字를 党 副主席 겸 副首相 鄧小平이 써야 한다고 要求한 "大字報"가 나붙었다.
- 1978. 11. 23. 北京市 長安거리에 "프로레타리아 民主政治는 프로레타리아 独裁政治를 必要로 한다"라는 題下에 "毛沢東主席은 위대하고 故周恩來首相은 正直 관대하며 現党主席 華国鋒은 賢明하다", "毛主席이나 周首相, 華主席을 反對하는 자는 不幸한 終末을 告하게 될 것이다"라고 警告하고 "우리는 이들 세指導者를 擁護해야 한다"라고 促求하였다. 또한 같은 거리에 붙여진 "大字報"

는 1978.10.31日 모든 公職에서 剝奪된 前國家副主席 劉小奇的 復權을 最初로 要求하였다.

- 1978.11.25. 北京天安門에 나붙은 "大字報"는 "한 個人이 마음대로 首相을 任命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華國鋒의 首相任命을 取消해야 한다"고 要求하며 毛沢東을 非難하였다.
- 1978.11.20. 人民日報는 中共史上 처음으로 스탈린의 誤謬와 소련의 先例를 指摘하면서 中共의 흐르시초프出現을 防止하기 위해 誤審으로 인한 모든 犧牲者들의 完全하고도 迅速한 全面復權을 主張하였다.
- 1978.11.26. 小平은 北京을 訪問한 日本民社黨委員長과의 會談에서 毛沢東과 華國鋒은 "天安門事件"에 아무런 責任이 없다고 밝혔다.
- 1978.11.27. 中共副首相 鄧小平은 美國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비크"와의 會見에서 毛沢東이 "中國歷史에 남긴 위대한 業績"을 讚揚하고 華國鋒과 自身 사이에는 아무런 不和와 갈등도 없다고 言明하고 自身에게 首相職을 맡아 달라는 要請을 받았으나 나이도 많고 또 中共의 現代化作業에 온몸을 기울이기 위해 그같은 要請을 拒否했다고 言明하였다.
- 1978.11.27. 約 3.4千名の 群衆들은 中共史上 처음으로 長安거리와 天安門廣場에서 自發적인 自由데모를 벌여 華

国鋒과 鄧小平을 頌揚하였다. 또 이들 데모는 "民主主義 萬歲", "華国鋒, 鄧小平 萬歲"를 외치며 民主主義와 自由의 實現을 要求하였다.

- 1978.11.28. 人民日報를 비롯한 여러 新聞, 텔레비는 党 指導者들이 人民의 "大字報" 등을 통한 自由言論과 民主主義 活動을 許容, 이것을 全國적으로 擴大하였다고 전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天安門廣場과 기타 여러 場所에서 數萬의 群衆들이 集會를 열어 言論의 自由를 讚揚하여 民主主義와 人權의 擴大를 要求하였다. 또한 新聞과 텔레비는 특히 "華国鋒 同志와 나사이에 異見이 없다"고 말한 鄧小平의 發言을 浮刻시켜 報道하였으며 "大字報活動은 人民들의 自身の 意思를 表現할 수 있는 民主主義의 한 方式"이라고 強調했다.

- 1978.11.30.의 한 "大字報"는 鄧小平 自身에 대한 攻撃은 하지 않고 鄧小平이 毛沢東을 攻撃한 "大字報"를 批判한 事實을 問題視하면서 "毛沢東 非難은 中共人民이 成熟해 졌을뿐만 아니라 過去에는 감히 꼬집에 낼 수 없었던 問題들에 대한 그들 自身の 見解를 表明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 1978.12.1. 副首相 鄧小平은 "大字報" 運動의 擴大로 中共 國內情勢가 不安定하다는 印象을 주어 外國人の 對



中共 投資忌避事態가 일어날 것을 憂慮, 現在 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黨政治局擴大會議에 19 個項의 黨中央委文書를 提出하고 擴大一路에 있는 民主主義運動과 反毛 大字報運動을 참가할 것을 促求하였다.

鄧小平은 또 이 문서에서 "毛가 失手를 한 것도 事實이나 그의 行績을 問題삼기에 앞서 長時間의 段階的인 再檢討가 必要하며 따라서 毛沢東에 대한 最終的인 評價는 未來世代가 내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鄧小平이가 民主化運動에 制動을 걸게 됨에 따라 1978. 11.19.부터 始作된 反毛大字報運動은 12.1. 現在 相當히 弱화되었다.

### (3) 分析과 評價

- 일부 "大字報"에서 華國에 대한 間接的인 批判과 鄧小平에 대한 直接的인 讚揚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곧 華國鋒과 鄧小平의 權力對決이라고 評價하기는 困難하다.
- 中共에 만일 權力鬭爭이라는 事件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華國鋒, 鄧小平體制가 꾸준히 推進해온 中共의 現代化 그리고 對西方世界와의 改營政策과 技術, 資本導入 政策이 깨어지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 鄧小平 自身이 華國鋒과의 權力鬭爭說을 극구 否認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問題의 "天安門事件" (1976.4.5)에 毛沢東과 華國鋒이 아무런 責任이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오

히려 華国鋒을 庇護하고 있는 것이 이를 反証하고 있다.

- 華国鋒은 분명히 毛沢東의 後繼者이며 또 그 自身 文革 勢力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華国鋒은 毛沢東死亡 以後 "四人組" 勢力을 물리쳤을뿐만 아니라 鄧小平을 復權시켰으며 또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에 잘 適應해오고 있다. 그리고 現在 華国鋒은 鄧小平과 現代化 作業의 두 牽引 車 役割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化國붕이가 退放 될 可能性은 稀薄하다.
- 光明日報와 일부 "大字報"에서 나타나고 있는 毛沢東 格下運動을 毛沢東보다 오히려 過去 毛沢東의 庇護를 받았던 4인조 등의 그의 追從勢力에 대한 攻擊인 것으로 分析된다.
- 또 이 "大字報" 運動은 毛沢東 自身에 대한 攻擊이라기 보다는 그의 追從者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神格化된 그의 人格을 正常 位置에 내려 놓으려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왜냐하면 文化革命 以後 毛沢東의 思想鬪 爭一辺到의 모든 理論과 이 理論을 떠받든 "四人組" 勢力의 諸般 行爲가 現在 化國붕과 등소평이 推進하고 있는 現代化作業에 큰 障礙要素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점들에 기초하여 볼때 1978. 7月부터 씩이 트 고 1978. 11. 19日부터 本格化된 "大字報"에 의한 "毛 沢東 再評價運動"은 (1) 中共의 現代化 作業의 障礙要素

로 등장하고 있는 "四人組"勢力에 대한 徹底한 批判, 肅清作業을 推進하고 (2) 1976. 4. 5의 天安門事件을 再 評價하고 (反革命事件으로부터 革命的 事件으로) (3) "天安門事件"과의 直接 關聯으로 등소평을 失脚시킨 1976. 4. 7.의 党中央委 政治局의 決議를 修正하려는 根本目的이 있었다고 判斷된다.

## 6. 毛沢東思想의 不變要素와 可變要素

### 가. 不變要素

#### (1) 毛沢東思想의 持續性

- 毛沢東은 生存時 (1) 政治家로서의 特定の 路線과 政策을 樹立하고 遂行하면서 是非善惡의 最終 決定者의 役割을 遂行하고 (2) 中國革命과 中共의 正統性을 代表하는 權刀의 源泉으로서의 二重의 機能을 遂行하여 왔다.
-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은 萬能이 아니었으며 그의 政策決定과 遂行過程에서 많은 過誤와 試行錯誤를 범했으며 따라서 反對勢力으로부터 批判을 받아왔다. 1958年부터 毛沢東에 의해서 推進되었던 三面紅旗政策 (總路線, 人民公社, 大躍進)의 失敗가 이의 代表的인 例이다.
- 특히 그의 모순의 調和面을 度外視하고 모순의 對立과 鬭爭面만을 強調하는 "矛盾論"은 中共內에서는 勿論, 소

련과 其他 共產諸國으로부터 辛辣한 批判과 非難을 받아 왔으며 지금도 論爭의 對象으로 되어 있다.

前者의 代表的인 예로서는 1964年 中共內에서 展開되었던 1분이 2 (一分而二) 와 합 2이 1 (合二而一) 論爭을, 後者의 것으로는 1953-58年의 中·蘇 矛盾論爭을 들 수가 있다.

- 이와같이 政治家로서의 毛沢東과 그의 思想에는 많은 缺陷이 內包되어 있음에도 毛沢東이 一身에 레닌과 스탈린을 함께 겸비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을 批判하는 것으로써 심볼로서의 毛沢東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직까지 充分히 制度化되어 있지 않는 中共에서는 中國共產黨의 存在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結果가 若起될 可能性이 濃厚하다.

- 바로 이러한 根本적인 理由 때문에 그리고 화국붕이가 文革期에 毛沢東에 의해서 中央으로 登用되고 바로 毛沢東의 後繼者라는 特殊性 때문에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에 대한 批判에는 當然히 限界가 그어질 수 밖에 없으며 毛沢東思想의 持續이 維持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存在하는 것이다.

## (2) 毛沢東思想의 常數와 變數

- 毛沢東思想은 多樣하며 時期에 따라서 變化된 樣相을 띠고 있다. 때문에 한가지 問題를 놓고 時期와 場所에

따라서 正反對의 解釋을 可能케 하는 部分이 許多하다.

- 따라서 毛沢東思想을 現화국봉 體制가 自己들의 體制維持와 政策 遂行에 有利한 方向으로 解釋을 試圖할 수도 있으며 또 自己에게 有利한 部分만을 強調해서 國民에게 보일 수 있는 余地가 存在한다.
- 화국봉체제는 이러한 毛沢東思想의 多樣性を 適切히 利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現 화국봉·등소평 體制가 指向하는 現代化 路綫에 障礙가 되는 部分에 대한 修正도 可能하다.
- 그러나 이와 같은 修正은 심볼로서의 毛沢東의 像에 커다란 傷處를 입히지 않는 극히 限定된 部分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換言하면 이것은 毛沢東思想의 全體系에 대한 修正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 특히 對外政策面에서의 화국봉 思想에는 變化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화국봉 체제가 毛沢東이 考案한 "三世界論"을 新憲法에서 明文化하고 있는 것이 이를 立証해 주고 있다.

나. 可變要素

(1) 毛沢東思想 修正의 不可避性

-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中共의 內政은 "紅"과 "專"이라는 두개의 傾向이 되풀이하는 惡循環이었다고 評價할 수가 있다.

- 1966년부터 시작된 文化大革命은 바로 "紅"路線이 갖는 否定的인 面을 集中的으로 代表하고 있다. 등소평이가 1966年以後의 10年을 가리켜 "어버린 10年"이었다고 指摘한 것은 이러한 점과 "紅"路線에 대한 부정적인 態度를 集約적으로 表現해 주고 있다.
- 先進工業技術보다 "革命的 理論", "革命的 精神", 自力更生" 등 理念重視一辺到의 "紅"路線은 中共에 政治的 混亂과 經濟的 沈滯와 落後를 招來하였다.
- 中共의 鉄鋼生産은 柑鋼으로 25,00万톤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것은 現 中共指導部에 危機感을 인겨다 주는 重大한 狀況이다.
- 이러한 危機的 經濟狀況을 打開하기 위해 提示된 것이 4個現代化路線이다. 新黨規約과 新憲法에는 社會主義 社會에서의 階級의 存在, 階級鬭爭問題 등의 理念的인 것은 뒤로 물러나고 現代化, 先進社會主義 強國의 建設 등이 前面에 나와 있다.
- 이것은 過去의 "政治優先"에서 "경제우선"에로의 180도 轉換을 意味하여 "경제우선"은 "정치우선"의 毛沢東思想에 대한 修正을 不可避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 (2) 毛沢東思想의 修正 方向

- 毛沢東 思想에 대한 修正이 不可避하다고 우선 神格化되 어있던 毛沢東을 人間의 位置로 끌어 내리는 것이 大前

제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毛沢東批判이라는 이름하에  
進行되고 있는 "大字報"에 의한 毛沢東批判運動이다.

- 그 다음으로 現 中共의 指導部는 毛沢東思想 中에서 自己들의 政策路線에 유리하다고 判斷되는 부분만을 選擇하여 이를 強調해 보이는 便法을 쓰고 있다. 이것은 毛沢東思想에 대한 直接的인 修正 없이 自己들의 立場을 굳히는데 있어서 가장 便利한 方法이다. 그 具體적인 例로 1978. 5. 16日字 人民日報는 "真理의 標準問題에 관하여"라는 題下의 解說論說에서 毛沢東의 著書인 "實踐論"중에서 "實踐이 真理의 唯一한 표준이다"는 부분만을 選擇하여 強調함으로써 이것이 同著書의 全部인 것 같이 나타내 보였다.
- 세째로 現 中共의 指導部는 時間과 場所·條件을 떠나서 毛沢東의 말을 敎條化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하면서 自己들의 毛沢東思想에 대한 수정을 合理化하고 있다. 이것은 곧 毛沢東 思想을 全体体系속에서 理解해야 한다는 이름 밑에 毛沢東 思想의 選擇的適用 또는 選擇的 非毛沢東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現 中共의 指導部가 毛沢東 思想에 대한 修正方向과 修正의 基準을 提示하였다는 점에서 注目視 된다.
- 이러한 方針아래 現在 中共에서는 "革命이란 生産力의 解放이다. 또는 經濟에 正確, 有效하게 服務하는 것이다"

라는 경제우선론이 대두되고 있다.

## 7. 結 論

- 1949年 中共政權樹立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共에서는 "紅"路線과 "전"路線이라는 두 개의 對立되는 路線이 存在하여 왔으며 따라서 中共의 內政은 이 對立되는 두 傾向이 되풀이되는 悲劇적으로 一貫되어 왔다.
- "紅"路線이 中共社會에 미친 悲影響과 害毒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화국봉·등소평體制는 文化革命路線으로부터 現代化路線으로 180도 轉換하였다.
- 그런데 中共의 여태까지의 內政이 共產國家 特有의 權力政治였다는 점에서 文化革命路線으로부터의 現代化路線으로의 轉換은 必然적으로 1) "紅"路線의 支持者이자 이들을 強力히 推進했던 文革世代들 어떻게 處理해야 하며 2) 文化革命의 理論的 뒷받침을 해온 毛沢東 思想을 어떻게 取及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問題를 隨伴하게 된다.
- "四人組"가 粉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그들의 殘存勢力은 화국봉·등소평 體制에 強力한 抵抗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思想面, 組織面에서 상당한 混亂을 若起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中共의 實情이다.
- 이러한 文革世代의 抵抗을 阻止하며 이들의 悲影響을 除



去하기 위해 화국봉·등소평 体制는 "四人組" 摘發, 批判鬭爭을 全國的인 規模에서 展開함과 同時에 黨規約과 憲法을 改正하여 組織과 制度的으로 經濟의 發展과 政治의 正常化를 圖謀하며 이에 努力을 繼續 傾注하고 있다.

- 화국봉·등소평 体制가 "紅" 路線을 中共社會를 落後하게 만든 根本, 要因으로 看做하고 있는 이상 現代化路線의 推進過程에서 毛沢東思想에 대한 修正은 不可避한 것으로 되어 있다.
- 現在 中共에서는 毛沢東思想에 대한 3個의 方向에서 展開되고 있다.
  - 첫째, 毛沢東 思想과 "四人組" 와의 分離가 그것이다. "天安門事件" 에 대한 再評價가 이의 典型的인 예이다.
  - 둘째 毛沢東 思想중에서 화국봉·등소평 体制가 그들의 現代化 路線을 推進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判斷되는 部分에 대한 強調과 이의 選擇的 適用이 그것이다.
  - 셋째, "毛沢東思想은 그의 思想의 全体系속에서 把握되고 理解되고 適用되어야 한다" 는 이름 밑에서 가해지고 있는 選擇的인 修正이 그것이다.
- 그러나 화국봉이가 毛沢東 思想을 批判·修正하고 "四人組" 殘存勢力에 대한 摘發·批判鬭爭을 展開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制約條件이 따르게 된다.
  - 첫째, 화국봉 自身이 毛沢東의 後繼者이며 文革時에 毛

沢東에 의해서 中央으로 登用된 文革受益者이다.

- 둘째, 政治家로서의 毛沢東을 지나치게 批判하는 것으로써 심볼로서의 毛沢東이 무너지다면 여태까지 毛沢東思想의 正当性에 根拠하고 있던 中國共產黨 自体의 存在가 흔들리게 된다.
- 셋째, 화국봉의 이러한 特殊性으로 인해 그는 文革世代와 등소평 復權勢力間의 갈등속에서 適正線을 維持해야 하는 밸런서의 役割을 担当해야 하는 立場에 처해 있다.
- 따라서 毛沢東思想에 대한 過激한 修正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毛沢東思想의 全体系는 그대로 維持되면서 選擇的인 修正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의 展望이며 毛沢東思想 批判과 修正의 限界点이다.
- 그러나 上記와 같은 화국봉主席의 性格과 特殊性 때문에 1)軍의 現代化, 經濟의 現代化와 2) "四人組" 摘發, 批判鬭爭을 徹底히 推進해 나가려는 등소평 勢力과 화국봉 支持 勢力間에는 이 問題를 懸繞하고 意見對立이 可能하며 이것이 適正線에서 調和를 이루지 못할 때 權力鬭爭으로 까지 發展하게 될 것이다.

## 参 考 文 献

1. 中共新憲法 (1978.3.5 採択)
2. 中共旧憲法 (1975 年)
3. 中共新党規約 (1977.8.18 採択)
4. 中共旧党規約 (1973 年)
5. 華国鋒의 第 5 次全人民大表大会에서 한 政治活動報告 (1978.2.26),  
世界周報, 1978.3.21
6. 人民日報 1977.4.26 에 紹介된 華国鋒의 1963 年の 論文 「貴社  
鼓動」 및 人民日報 1975.10.21 의 「農業은 大寨에서 배우다」  
全人民代表大会에서의 華国鋒의 報告
7. 東京大学近代中国学会議「毛沢東思想萬歲」, 三一書房
8. 華国鋒의 「在中国共產党第十一次全国代表大会上的 政治報告」, 人  
民日報 1977.8.23
9. 葉劍英의 「在中国共產党第十一次全国代表大会上關於修改党的 章程  
報告」
10. 安藤正士「改訂版」, 「十大關係論과 華體制」, 現代의 眼」,  
1977 年 8 月号
11. 華国鋒의 「在第二次全国農業大寨會議上的 講話」, 人民日報,  
1976.12.28

12. 宇清의 「徹底粉碎四人幫的幫派體系」, 人民日報, 1977. 8. 6
13. 「中共中央關於召開全國科學大會的通知」, 人民日報, 1977. 9. 23
14. 「高等學校招生進行重大改革」, 人民日報, 1977. 10. 21
15. 1978. 7. 1 日字 人民日報, 紅旗의 中共黨創立 57 周年紀念共同社說
16. 1978. 5. 16 日字 人民日報社說 「真理의 標準問題에 관하여」